소년단

1957.7

승 리 의 날

이 작품은 우리 인민이 조국의 력사에 빛나는 페지를 기록한 1953년 7월 27일을 그린 것이다. 피로써 지킨 고지에서 인민 군대 아저씨들은 피로써 맺어진 전우인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과 함께 온 세계를 향하여 승리의 만세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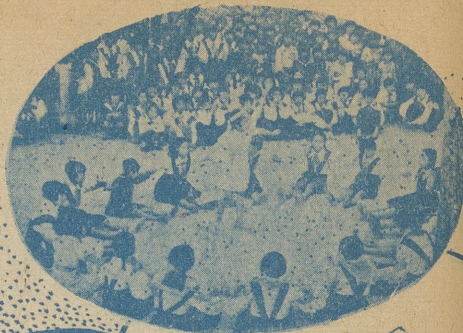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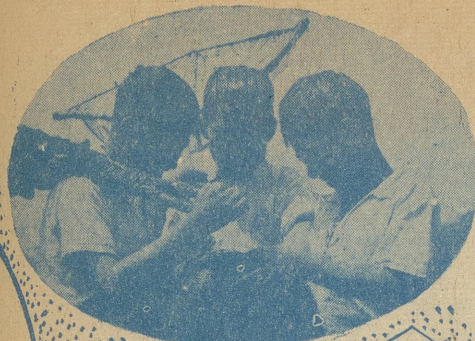
《승리의 날》—바로 그렇다. 조선 인민은 자기 조국 강토를 삼키려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승리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호통치던 미제 침략 군대를 선두로 한 16개국 침략군은 3년여의 전쟁에서 109만 여명의 병력과 12,200여대의 비행기와 552척의 함선 및 선박 등 수많은 손실을 입었으며 결국 전쟁의 불을 지르던 그 자리에 주저 앉아 정전 협정에 도장을 찍었다. 이리하여 세계 인민들은 미제를 《종이 범》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미제는 이처럼 코가 납작하게 되였으나 아직도 전쟁 나발을 불고 있으며 리 승만 도당을 시켜 다시 전쟁을 일으켜 보려고 《북진》 나발을 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일본에 있던 자기들의 침략 본부인 《유엔군 사령부》를 남반부에 옮겨 왔으며 또한 정전 협정을 파괴하고 남반부에 신무기까지 끌어 들이려고 날뛰고 있다. 그러나 《종이 범》인 미제놈들에게 지금 놀랄 사람은 없다. 《종이 범》을 누가 무서워 하겠는가, 날이 갈수록 강대해 지는 세계 평화 력량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반드시 평화적 조국 통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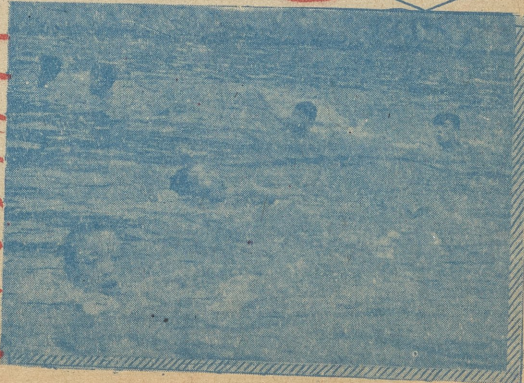
앞표지……등산의 하루 리 종록 촬영

뒤표지……너희들에게 선물을 가져 왔다 서 성환 그림

소년단 1957년7월호 내용

○소년단원들의 즐거운 휴식에는 언제나 《옹헤야》《돈돌라리》 등 즐거운 춤이 벌어진다.
○오락과 유희는 항상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있는 고기는 모두 잡을 상싶어도 정작 그물을 대고 고기를 몰면 잡히는 것보다 놓치는 것이 더 많으니 고기 잡이도 능수가 되여야지.
○배운 지식으로 만들어 보고, 만든 것으로 실험해 보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넓혀만 준다.
튼튼한 몸! 이것은 나라의 보배이다.
우리들의 즐거운 여름
록음이 짙은 산과 들, 오곡이 무럭무럭 자라는 벌, 시원한 바람이 불어 오는 바다'가,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
여름은 항상 우리들을 즐겁게 한다.
이 여름을 자연 속에서 더 많이 배우고 몸을 단련하며 쾌활하고 유쾌하게 즐기자!
무더운 날 나무그늘로 찾아가 책 읽는 것도 퍽 즐거운 일이다.
넓은 바다에서 배" 노리도 즐겁다.
○산마루에 올라 서니 행복한 고향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어찌 그리고 싶지 않으랴!
○풀 이름을 많이 안다고 뻐기지단 말라! 산에 자주 올라야 풀 이름도 많이 알고 어떤 곳에 어떤 풀이 난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인제는 제법 농사 일도 어지간히 할만 하게 되였다. 그러나 협동 조합의 농학 기사가 되자면 더 배워야 한다.
○물에 뛰여 들면 별의별 장난이 벌어진다. 그래도 헤염치기가 가장 신이 난다. 여름 한철 이것을 떼놓지는 못한다.

동시 3편

바다는 부른다

김 순 석

바다의 아침

해가 솟아 오르네,
출렁 출렁 밀려드는
거센 물'결에 세수를 하고,
크고 둥근 해 시원스럽네.

누가 먼저 저 해를 맞나,
갈매기 훨 훨 먼저 맞을가?
섬에 높이 솟은 형제 바윌가?
모래 사장 방긋 웃는 해당화
일가?

아니네 이 나라선 어부들 차지
어제 저녁 달 무렵 먼 바다에 나
가서
새벽녘 배'전에 그물을 댕기는
고기 잡이 아저씨들 맨먼저 맞네

보아라 동무여!
펄 펄 뛰는 고기.떼 퍼 담는
그 넓은 가슴에 기운찬 팔뚝에
물우에 솟으며 해'님이 벙싯
웃네.
첫 인사 하네.

어린 갈매기

어린 갈매기
파도 치는 바위에 앉았네.
날고 싶으나, 바다가 너무 넓네.
파도가 너무 높고 거세네.

엄마 갈매기
파도를 차며 훨훨 나네.
하늘에 높이, 물우에 낮게…
—아.나도 언제면 저렇게 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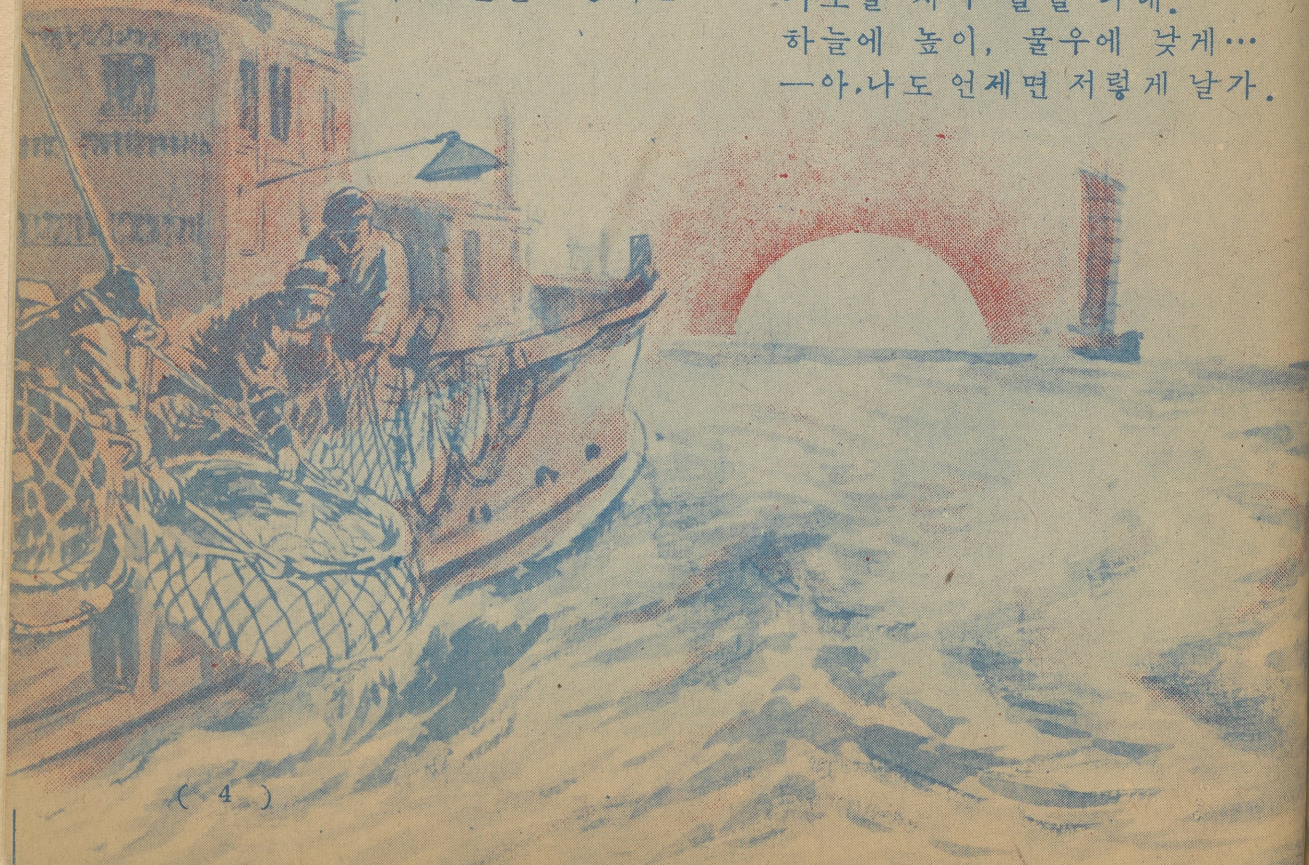
어린 갈매기
이제 너도 엄마처럼 날으리라.
파도를 겁내잖고 모진 바람 맞
받아
이제 너도 큰 갈매기 되리라.

너는 겁을 모르는 동해의
갈매기 아니냐
너는 장한 조선의 어린 갈매기
아니냐!

바다는 부른다

바다는 부른다.
—동무여 내게로 오라,
내 가슴은 깊고도 넓다.
내게는 금은보화 가득히 있고
나의 출렁이는 물녘에는
금모래 빤짝이고 조개껍질 널
려 있다.

바다는 부른다.
—나는 크고도 크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니
조국의 은혜 바다처럼 크다고
부모님 은혜 바다처럼 깊다고
우리의 앞길 바다처럼 넓다고

바다는 부른다.
—내게로 오라 어린 동무여!
나는 영웅 조선의 바다.
너희들은 영웅 조선의 어린이
바다처럼 거세게 자라라.
두려움 모르고 깊고 또 크게,
조국을 빛내며!

누구나 체육선수

◇ 평남 안주 고급 중학교 (초급반) 대에서 ◇

내가 이 학교 교문을 들어 서려고 할때입니다.

교문을 들어 서던 동무들은 저마다. 《1등, 2등…》하고 소리 치는 것이였습니다.

무슨 영문일가? 하고 한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점심 먹으러 집에 갔던 동무들이 속보 경기를 하면서 온 것이였습니다.

학교 앞뒤의 커다란 두 운동장에서는 줄 넘기 운동에 신이 난 동무들, 롱구, 배구, 송구, 피구를 하고 있는 동무들, 저마다 유희와 체육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방금 속보 경기로 교문을 들어 선 동무들도 곧 자기의 마음 나는 곳으로 뛰여가 한몫 끼우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롱구장에서만은 이미 시합이 시작되여서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롱구를 좋아하는 4분단 먹석이는 기다리다 못해 자기의 자그마한 고무공을 자꾸만 롱구대에 던져 보군 하였습니다.

시합을 하고 있는 동무들은 방해가 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먹석이는 할 수 없이 철봉에 매달려 재주를 피우는 동무들의 틈에도 끼워 보고, 유희 놀음에 신이 난 동무들에게도 가 보았으나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아 《웅헤야》 노래가 흘러 나오는 체육 강당으로 달려가 군중 무용에 섞였습니다.

누구 하나 구석에 웅쿠리고 앉아 있는 동무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활기 있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롱구 시합을 하는 동무들은 재빠른 몸움직임으로 재치 있게 뽈을 련락하며 서로 상대편의 꼴문 앞으로 밀려 가고 밀려오군 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거의 다 체력 검정 합격자 메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들이 이 학교 롱구 선수들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합이 끝나자 나는 구슬 땀을 씻으며 롱구장을 나서는 명숙이라는 동무를 만났습니다. 《참 이 학교 선수들은 롱구를 잘 하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는 《아닙니다. 선수들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 분단 동무들입니다》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학교 동무들은 모두가 선수들이로군요》 하고 깜짝 놀라는 내 말에 분단 위원장인 명숙이는 어떻게 모든 동무들이 체육을 즐기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기쁜 얼굴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　　＊

이 학교 대 동무들이 체육을 즐기게 된 것은 1955년 가을부터입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대 모임을 열고 체력 검정에 합격된 동무들에게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교장 선생님이 일일이 휘장을 달아 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메달 받은 동무들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고 박수로 그들을 축하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한참 바라보시던 교장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튼튼한 몸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수들만이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동무들이 운동을 즐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4분단에도 메달 받은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명 안 되는 이들을 분단 동무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대 모임과 분단 모임들에서는 튼튼한 몸을 키우지 위해 체육을 잘 하자고 의논들 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4분단 열성자들은 동무들의 의견을 분단의 체육 선수인 황 춘희, 리 종화, 김 순자 동무들과도 의논하고 체육 선생님과도 토론해서 재미 있게 사업들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동무들이 흥미 있어 하는 롱구, 피구, 유희, 군중 무용 등을 자주 조직하여 전체 동무들이 체육에 취미를 부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학교에 오고 갈 때마다 속보 련습 경기도 조직하게 하였고 학교에서나 집에서도 쉬는 시간이면 모든 운동에 리로운 줄 넘기 운동을 즐기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차츰 체육을 즐기게 된 분단 동무들은 분단의 이름으로 학교에 철봉대, 평행봉도 세웠고 자기 집 마당들에는 철봉, 평행봉, 단봉, 뜀줄을 만들어 놓게 되였습니다.

겨울이 닥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겨울이라고 체력 단련을 쉬지 않았습니다.

썰매 타기, 스케트 경기, 눈 내린 높은 산에 오르기, 줄 당기기, 눈 싸움, 썰매 운반 경기들을 하면서 추위를 이겨 내며 씩씩하게 몸을 튼튼히 단련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전체 동무들이 운동을 즐긴 것은 아닙니다.

동무들 중에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 동무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 먹으러 집에 갔다 오느라고 늦어서 롱구 시합에 참례하지 못했던 먹석이도 지난 날엔 운동을 싫어하던 동무였습니다.

동무들이 체육 경기에 나가자고 끌어내면 《추운데》 《더운데》 《할 줄 모르는데》하고 핑계만 대면서 달아 나군 했습니다.

그러나 분단 동무들 대다수가 체육을 즐기는데 자기만이 외톨이가 된듯 싶어서 섭섭했습니다. 거게다가 분단 동무들이 자꾸 함께 체육하자고 권하기도 하고 해서 그는 한두번 분단에서 조직하는 경기에 나가게 되면서부터 점점 체육에 취미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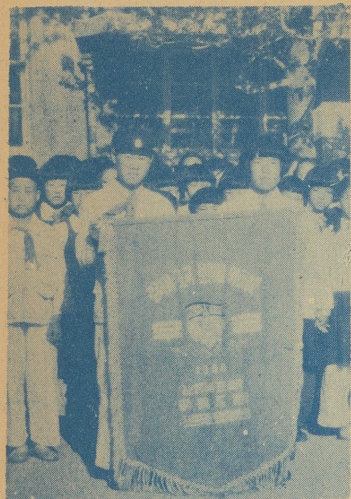
지금은 체육을 누구나 다 즐깁니다.

동무들이 이렇게 체육을 즐기기 시작하게 되자 분단에서는 체육을 더 활기 있게 조직했습니다.

먼저 동무들을 3조로 짜고 체육을 잘 하는 동무들을 조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단 위원이면서 군 체육 선수로서 때때로 경기에 나가는 황 춘희 동무에게 총책임을 지웠습니다.

조들에서는 체력 검정 종목들을 련습했습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체력 검정 그라프를 만들고 경쟁을 조직했습니다.

그라프는 체력 검정 종목인 단거리 질주, 중거리 질주, 조약, 수류탄 던지기, 행

군, 현수, 수영, 체조로 나누어 놓고 련습 중에 체력 검정 기준을 돌파한 동무들을 빨간 연필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동무들은 모두가 경쟁에 열성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체육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분단에는 달라진 점이 많았습니다.

체육 경기를 할 때마다 이기겠다고 한 마음이 되던 단결심은 곧 분단에서 조직하는 다른 사업에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무들끼리 소소한 일로 다툰 일이 있어도 경기에 나가선 인차 이기자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뭉치였고 서로 즐거워했습니다.

이리하여 분단은 화목하고 활기 있는 한 가정으로 되였고 지난 해 체력 검정에서는 82%의 동무들이 튼튼한 체력을 자랑하는 메달을 받았습니다.

*　　　*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4분단에서 뿐이 아닙니다.

여러 분단 동무들을 만나 이야기했는데 이 학교 대 모든 분단이 4분단에 떨어지지 않게 체육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학교 대에서는 지난 해 전체 동무들의 69%가 체력 검정 합격자의 메달을 받게 되였고, 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단체로 써 내각 체육 지도 위원회와 민청 중앙 위원회의 이름으로 된 소년급 우승기까지 받게 되였습니다.

지금 이 학교 대 전체 동무들은 이번 여름 방학에도 더 즐거운 체육과 오락, 야영으로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 금년에는 체력 검정에서 모두가 메달을 받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 옥 선

민주수도 건설장에서 온 소식

《잡지에 내여 칭찬해 주십시요》

나는 우리 화학 공업 대학 여러 동무들과 함께 민주 수도 평양을 건설하는 영예로운 일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첫날부터 평양시내 귀여운 여러 소년단원들로부터 위안을 받으며 힘드는 줄 모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 제1 녀자 고급 중학교 인민반 4학년 2반 신 덕실 소년단원과, 평양 제9 중학교 인민반 3학년 7반 최 순실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행동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문 오수 간선 공사장에서 일하게 된 첫날입니다.

학교에 갔다 오던 순실, 덕실 두 소년단원은 일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수근거리더니 곧 집으로 들어가 큰 주전자에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권하였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지켜 서서 보다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 데 톱, 마치 등을 빌려다 주었습니다.

이날부터 이들은 짬짬이 음료수를 길어다 주며 우리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실 때마다,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그들의 아름다운 행동에 감탄하면서 더 큰 힘이 솟아 일하군 했습니다.

보통문 거리 건설장에서

흥남 화학 공업 대학 식료 공업부

박 명 찬

5월 30일

*　*　*

이 소식 끝에는 이 사실을 《잡지에 내여 칭찬해 주십시요》하고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쏘련 삐오네르들이 걸어온 길☆

어린 투사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에서 승리한 쏘련은 새 생활 건설에 들어 서면서 수백만 근로자들과 젊은 세대들 앞에 훌륭한 새 앞길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기의 조직을 가지고 서로 단결하며 새 생활 건설에 참가할 것을 원하였다.

이 도시 저 도시에서는 공산당 지방 당 단체의 방조 밑에 아동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교양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어린이 그루빠와 크루쇼크들이 발생하였다.

1919년 5월 25일 모쓰크바 붉은 광장에서는 청년들의 사열식이 진행되였는데 거기에 어린 공산주의자 그루빠들도 자원하여 참가하였다.

이날 레닌 선생은 사열식에 참가한 어린이들 앞에서 연설하시면서 《자라나는 프로레타리아트 아동들은 혁명을 도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어린이들은 《레닌 만세!》라고 불렀다.

레닌 선생의 이 연설은 곧 어린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였다.

날이 갈수록 어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활기를 띄였다. 그들은 자기의 아동 단체 조직을 희망해 나섰다.

그리하여 아동들은 쏘련 공산당의 배려와 공청의 지도 밑에 아동 단체 《삐오네르》를 조직하게 되였다.

《삐오네르》란 말은 사람들에게 앞길을 열어 주면서 앞장 서 나아가는 선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엠•고리끼는 《……삐오네르——이는 우리의 교대자이며 후비이며 생활에서 새롭고 유익한 것을 깊게 하고 넓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였다.

첫 어린 삐오네르 부대들은 공청에 의하여 1922년 봄 쏘련의 수도 모쓰크바에서 조직되였다. 모쓰크바 크라스노 쁘레쓰넨쓰크 구의 제 16 인쇄소 공청원들은 1922년 2월에 어린 삐오네르 부대의 첫 모임을 진행하였다. 이 모임에는 52명의 어린 공산주의자들이 참석하였다. 뒤이어 모쓰크바의 쏘꼴니체쓰끄, 자모쓰크워레쯔끼 및 기타 지구들에서도 삐오네르 부대들이 조직되였다.

이 단체들은 어느덧 모쓰크바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게 되였고 그들의 흥미 있는 생활은 곧 어린이들을 삐오네르 단체에로 이끌었다. 삐오네르 부대는 계속 늘어 갔으며 우크라이나, 우랄, 백로씨야, 원동 등에서도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각 지방에서 삐오네르 부대들이 조직되자 1922년 5월 16일부

☆모쓰크바의 교외 쏘꼬르니끼에서 삐오네르 부대를 사열하는 프룬제☆

터 19일까지 모쓰크바에서 열리였던 공청 전로 대표자 회의는 삐오네르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이 운동을 옳게 지도할 것을 공청 중앙 위원회에 맡기였다.

이리하여 1922년 5월 19일은 삐오네르 단체의 창건일로 되였다.

삐오네르 부대는 세상에 나타난 첫날부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규률 있게 생활하기 위하여 힘썼고 로동자, 농민의 정권인 쏘베트를 튼튼히 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힘쓰는 어른들을 모든 힘을 다하여 도왔다.

어린 삐오네르들은 로동 계급이 걸어온 전통을 이어 학교에 새로운 기풍을 세워서 전체 학생들의 교양 사업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오삐네르들은 자기들 뿐만 아니라 이웃 거리와 마을의 어린이들과 자주 섞여 생활하면서 그들을 자기들이 하는 유익한 일에 이끌어 들였으며 한편 자주 결석하는 학생들을 전부 학교에 나오도록 하는 데서도 선생들을 도와 많은 일을 하였다.

☆ 一九二七년 당시의 삐오네르 ☆

그리하여 1919년 5월 25일 붉은 광장에서 연설하신 레닌 선생의 말씀을 그들은 훌륭히 실천해 나갔다.

이렇게 어린 삐오네르들까지 새 생활 건설에 참가하는 것을 본 레닌 선생은 매우 기뻐하시였고 그들의 열성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쏘련 삐오네르 단체는 레닌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3,422점의 교편물을 만들었다

우리들의 손으로 만든 풍력 발전기에서 첫 전류가 전구까지 흘렀습니다.

지난 2학기 자연'과 시간에 《전기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를 배웠지만 그때는 선생님께서 말로 들었을 뿐이고 이렇게 우리들의 손으로 실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제는 우리들의 손으로 전기를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들은 《교마 5개년 계획》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겠는가에 대하여 대와 분단들에서는 2월 17일부터 15일간이나 많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은 실험과 실습을 통하여 더 잘 배우기 위해 직관물들을 많이 만들자는 것이였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 대에는 지금까지 교편물이라고는 괘도들 뿐이였으니까요.

이리하여 제1 분단에서는 김 만전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처음으로 풍력 발전기와 수력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뒤를 따라 제3 분단에서는 38종의 괘도를 만들었고 제6 분단에서는 랭각기, 증류기, 실험대 등 자연'과 실험 실습에 필요한 50여점의 실험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자랑할 것은 1학년 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만든 2,570여점의 《립체 교편물》입니다. 이것은 사과, 복숭아, 가지 그리고 토끼, 닭, 오리 등 70여종의 식물과 동물의 모형을 자유로이 움직이면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산수 문제 같은 것을 직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학교 대 동무들은 선생님들을 도와 많은 교편물들을 만들고 배운 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다져 가고 있습니다.

량강도 혜산 사전 부속 인민 학교 대
위원장 로 병 률

운산 광산을 찾아서

우리 7분단 동무들이 운산 광산을 찾아 갈 생각을 하게 된것은 국어 시간에 샤만호 사건을 배운 때부터였습니다.

1866년부터 미국놈들이 조선의 금, 은, 보물을 빼앗으려고 대동강에 침입했었다는 것을 배울 때 우리들은 운산 광산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운산 광산의 력사를 똑똑히 아는 동무는 없었습니다. 1882년 《조미 수호 조약》을 억지로 체결한 후 미국놈들이 운산 광산에 와서 금을 캐 갔다는 것 밖에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분단에서는 운산 광산의 력사를 똑똑히 알기 위하여 여러가지 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5월 31일 방과후 우리들은 준비해 온 대로 운산 광산을 찾아 갔습니다.

광산 마을에 이르러 우리는 곧 최 봉태 할아버지를 모시게 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광산에 미국놈이 와 있을 때로부터 내내 일해 오신 분이였습니다. 우리가 이 광산을 미국놈들이 어떻게 략탈했는가를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너희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게다. 생각만 하여도 치가 떨리는구나》라고 하시면서 지난날 미국놈이 우리 로동자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부렸는가를 자세히 들려 주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놈들은 로동자 아저씨들에게 모진 채찍질과 때로는 증기 빠이프로 화상까지 입게 하면서 마구 일을 시켰습니다.

최 봉태 할아버지는 우리들을 대암갱으로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대암갱은 수직으로 뚫고 들어 간 굴이였습니다.

최 봉태 할아버지는 이 굴에서 있은 지난날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태원 아저씨가 〈루드〉라는 미국 감독놈에게 이렇게 말했지, 동발을 뽑는 일은 위험하니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놈은 태

원 아저씨를 겁쟁이라고 욕설하면서 사정 없이 빰을 후려 갈기였지, 그는 할 수 없이 굴에 들어 갔구나. 그런데 10분도 못되여 굴이 그만 무너졌어. 이 소식을 안 그의 아주머니는 미국 감독놈 〈루드〉에게 남편을 살려 내라고 대들었지. 미국놈은 거만스레 껄껄 웃으면서 권총을 뽑아 들더니 그 아주머니를 쏘아 죽였단다…》.

이에 격분한 로동자 아저씨들은 미국 놈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에 겁 먹은 미국놈은 간사한 말로 조선 로동자들을 꾀여 보려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 가난한 당신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이런 산'골에 왔습네다. 당신들이 광산 기술만 배우면 우리는 즉시 미국으로 돌아 갑네다. 일을 빨리 빨리 잘하면 모두 당신들께 리롭습네다…》

이것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 사흘만에 또 사고가 생겼습니다. 동발이 무너지면서 그만 정 학조 아저씨가 그 밑에 깔렸습니다. 빨리 돌을 들어 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미국 감독놈 《탐하손》은 밖으로 내 놓인 학조 아저씨의 두 팔을 찍어 버리였습니다. 깔린 사람은 없다고 속이려는 배'장이였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알게 된 로동자 아저씨들은 놈들에게 달려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놈들은 벌써 총을 휘두르고 있었고, 일본 경찰도 미국놈 편을 들었습니다.

그후에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답니다.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전기에 타 죽고, 맞아 죽고, 갱내는 실로 도살장과 같았단다. 그때 함께 일하던 사람이란 거의 죽고 쫓겨나고 하여 지금은 몇 사람 남지 않았다》.

우리들은 대암갱에서 나와 다시 《야브레골》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고 오랜 묘들이 많았습니다. 이 묘들은 놈들이 매일처럼 억울하게 죽인 로동자들을 남 몰래 파묻은 것이랍니다.

이번 향토 연구를 통하여 오늘 남조선에

침략의 둥지를 틀고 앉은 미국놈들은 옛날부터 조선 인민의 원쑤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운산 광산을 차지했을 때도 미국놈들에게 못지 않게 로동자들을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굴 속에 불이 일어났을 때 불 끌 차비는 하지도 않으면서 굴 속에 사람이 있어야 불을 끈다는 핑게로 로동자들을 못 나오게 하여 무리 죽음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자본가놈들이야 다 같은 놈들이지》라고 말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격분에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지내 온 이야기를 들으며 미제와 일제가 살인 강도질한 자료를 연구하는 것은 오랜 옛날의 력사 유물을 모으고 견학하는 일에 못지 않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평북 운산군 북진 인민 학교 ◇—

제7 분단 김 경 숙

※※※※※ (유) ※※※※ (희) ※※※※※

완전한 단어 만들기

이 유희는 어떤 곳에서나 특별한 준비 없이도 즐겨 놀 수 있는 유희이다.

유희자들은 처음에 같은 수로 두편을 나누고 그림과 같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주 서게 된다.

다음에 지도자는 각편에 번호를 부르게 하고 각각 자기 번호를 기억하게 한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유희는 곧 시작된다.

유희 진행 방법

처음에 지도자는 어느 한 단어의 첫 부분만 말하고 2~3초 후에 생각나는 번호를 부른다.

이때 량편 유희자들 중 지도자가 부른 번호에 해당되는 동무가 그 단어의 나머지 부분을 대답하게 된다.

례를 들어 지도자가 《미》하고 이어 2—3 초 후에 《5번》하고 부르면 량편의 5번 동무들은 《제》 혹은 《술》등으로, 또는 지도자가 《원》하고 불렀다면 유희자는 《쑤》 등등으로 각기 대답한다.

그런데 량편 5번 동무들 중 어느 한쪽 동무가 곧 대답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앉게 되며 먼저 대답한 동무가 대답하지 못 한 동무의 앞에 가서 서게 된다. 그러면 1점을 얻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희를 계속하여 일정한 점'수 (인원에 따라 적당히 정함)를 먼저 얻는 편이 승리한다.

승부가 나면 진 편의 유희자들은 이긴 편의 유희자들을 각각 업고 자기 편 뒤쪽에 이미 정해 놓은 목표물을 돌아 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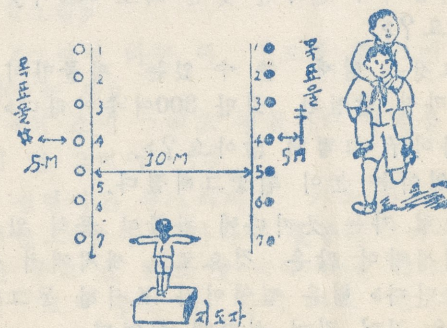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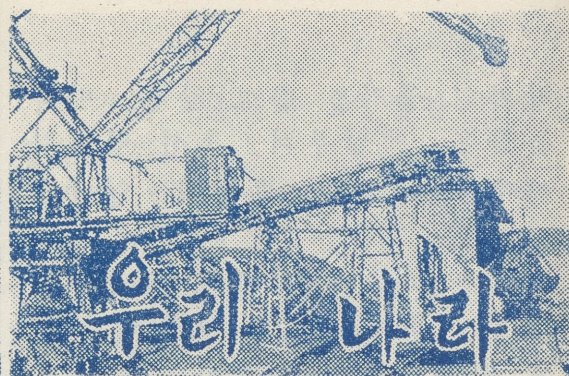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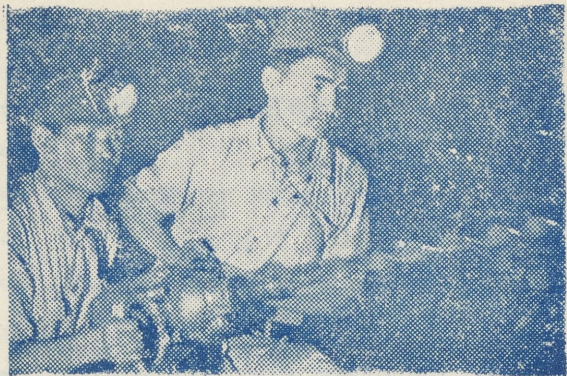
※단어는 짧은 단어로 하되 교양적 내용을 가진 단어를 리용할 것이다.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우리 나라 땅속의 보물

◇굴진 작업 —(아오지 탄광에서)— 기계로 석탄을 나른다◇

◇무산 광산에서 기계로 굴착한다◇

◇대유동 금광산에서◇

흰 종이에다 조선 지도를 그린 길영이는 지리 학습장을 보며 지도 우에 붉은 색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

《야 참 많기두 많은 데》 길영이는 혼자' 말을 하며 한참 지도를 보다 이번에는 동그라미들에 색칠해 갔다.

《너 그게 뭐니?》 옆에 계시던 형이 길영이에게 물었다.

《이것도 몰라요! 이건 우리 나라 땅속의 보물이 있는 곳들인데요》.

《옳지 우리 나라 지하 자원이 있는 곳을 표시한게로구나. 그런데 색칠은 뭐라고 하니?》 형은 길영이에게 가까이 앉으며 캐여 물었다.

《그래야 철인지 동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아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러나 그건 잘 안될 거다. 어떻게 색칠하면 그 많은 종류를 다 구별할 수 있겠니, 너 우리 나라에서 나는 광물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200여종이라지요?》.

《그것은 현재 쓸 수 있는 광물만이고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300여종이란다》.

《아이구 그렇게 많아요?》.

길영이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럼 가는 곳마다에 광물이 묻혀 있고 그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도 세계에서 이름 높단다》 형은 길영이가 표시한 동그라미들을 짚어 가며 설명해 주었다.

《자, 네가 붉은 색칠 한 것이 철광이 나는 곳이라지,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함북도 무산 일대만 보더라도 약 13억톤의 자철광이 파묻혀 있단다》.

《13억톤이요?!》.

길영이는 깜짝 놀래며 되물었다.

《그래, 13억톤이지! 이것은 일본의 전체 철광석 매장량보다 20배나 더 많다. 이 철광을 1년에 600만톤씩만 캔다고 해도 200년 이상 캘 수 있다. 600만톤의 철광에서 선철이 약 200만톤이 생산되는데 8•15전 우리 나라에서 한 해에 50～60만톤의 선철을 생산했으니 그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겠지!》.

《그럼 전 조선에서 나는 철광은 굉장히 많겠지요》.

형은 특수강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합금용 광물들인 탕그스텐, 모리브덴, 닉켈, 크롬, 망강, 코바르트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전구와 같은 중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이는 탕그스텐광은 그 매장량이 세계에서 여섯번째가 되고 모리브덴광은 채굴량이 세계에서 여섯번째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마천령 산맥을 중심으로 마그네사이트가 36억톤이나 매장되여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귀금속 광물인 금과 은도 대단히 많다. 1939년 우리 나라에는 6,513개의 광산이 있었는 데 그의 64%가 금 광산이였단다. 이 해에 순금을 31톤이나 생산하여 세계에서 일곱번째 곱히였고 면적에 비해 금이 나는 량이 남 아프리카의 트란스발과 더불어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형은 동, 연, 아연 등 유색 금속광도 우리 나라에 많다고 이야기했다.

《형님 우리 나라엔 석탄도 많지요?》

《물론이지! 우리 나라에는 약 20억톤의 석탄이 매장되여 있다. 이것을 매년 1,000만톤씩 캔다고 해도(1차 5개년 계획 말에 가면 그만큼 캐게 된다)200년은 계속 캘 수 있으니 더 말할 것 없지 않니!》.

길영이는 너무나 많은 수'자에 눈만 둥그래서 턱을 고이고 앉아 형의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야 그런데 이것 봐요! 이 동그라미들이 북반부에 거의 다 있어요》 하며 좋은 것을 발견한 듯 기뻐했다.

형은 빙글 빙글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렇다. 넌 참 좋은 것을 알았다. 땅속 보물의 거의 전부가 북반부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거다.

철광은 더 말할 것 없고 금, 은은 70% 이상, 탕그스텐과 모리브덴은 78.5%, 흑연은 71%나 북반부에 매장되여 있다…》

《석탄은요?》.

《석탄은 90%이상이 북반부에 있지!》

《굉장한데요!》.

《그래 북반부에서는 로동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풍부한 지하 자원을 마음껏 리용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지! 이제 첫 5개년 계획만 끝나 봐라! 넉넉히 입고 먹고 살 수 있게 된단다.

2차, 3차…이렇게 5개년 계획을 거듭해 나가느라면 광물도 굉장히 많아야 한단다. 우리는 이제 남반부 인민들에게 필요한 물건도 만들어야 하니까 더 많이 필요하지!》

《그러자면 광물이 모자라지 않을가요?》

《왜 모자라! 우리 나라 땅 속에는 광물이 꽉 들어 찾는 데 지금 말한 것은 모두 발견해 놓은 것만이란다. 아직 발견하지 못 한 것이 얼마나 많겠니!》

《알았어요. 우리도 지리에서 배웠는 데 동이 많이 나는 갑산에서 일제놈들은 동을 다 캐가고 이제는 없다고 했으나 우리 나라의 기술자들이 또 많은 동광맥을 발견했다지 않아요!》.

《옳다, 놈들은 기술이 모자랐으니까 더 있는 줄 몰랐지, 그러기에 지금 우리 나라 땅 속에는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 모르는 것도 많다. 석탄도, 철도 더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 탐사대 아저씨들이 쏘련의 새 기술을 본받아 새로운 광맥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있는지 너도 알고 있겠지, 배우면 배울수록 더 훌륭한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나라의 앞날의 주인인 너희들이 더 공부하고 더 좋은 기술을 배워 땅속의 보물도 캐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훌륭히 쓰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새로 발견하면 이 지도에 또 동그라미가 붓겠지요?》.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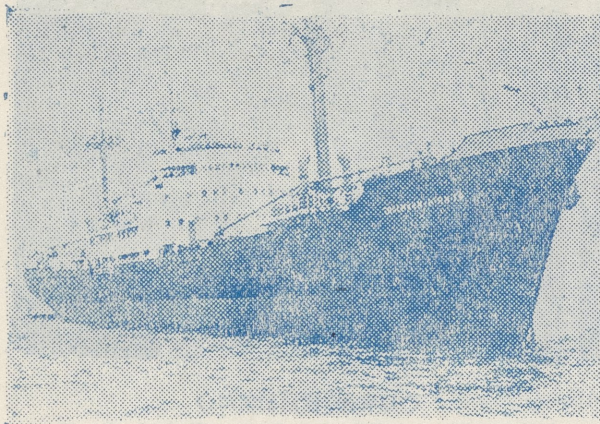
《그러면 나는 이 지도를 더 크게 그려야겠는 데》.

《더 크게 그리고 광물마다 부호를 달아 더 잘 그려야지!》

길영이는 동그라미로 가득 찬 지도를 처들고《참 우리 나라는 훌륭한 나라인데! 산 좋고 물 맑고 땅 속에 보물 많고 바다에 고기 많고 쌀 많이 나고 행복한 나라!…》하며 기뻐 깡충 깡충 뛰였다.

리 종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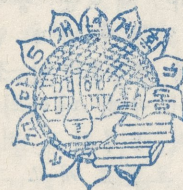
독일 삐오네르와 《텔만 삐오네르》호 상선

◇《텔만 삐오네르》호 상선◇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삐오네르들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독일 공산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로동자 아저씨들이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싸우던 때부터 삐오네르들은 부모들의 투쟁을 도와 활동하였다. 독일 공산 청년 동맹의 지도와 교양을 받은 삐오네르들은 싸우는 로동 계급의 주위에 굳게 뭉치여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이 마을 저 거리로 돌아 다니면서 인민들을 투쟁에로 부르는 당의 선전 삐라를 인민들 속에 전달하였으며 자기들의 로력으로 번 돈과 아낀 돈을 모아 당 기관지 원조금을 내였다.

투쟁 속에서 자라난 삐오네르들은 청년 투사로 되였으며 지금은 자유 독일 청년 동맹의 간부들로서 일하고 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된 후 독일 삐오네르 단체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전국에 조직되였다. 1948년 12월 13일은 독일 삐오네르 단체가 창립된 날이다. 독일 삐오네르 단체는 독일 인민의 위대한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던 에른스트 텔만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　　※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삐오네르들은 금년 3월 16일을 기쁜 명절처럼 맞이하였다.

6,000 포기의 피마주와 해바라기

우리 학교대 《꼬마 5개년 계획》 활동 가운데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피마주와 해바라기 가꾸기는 어느 부문에 못지 않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심은 우리 학교의 피마주와 해바라기는 지금 65~70센치메트르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교 식물 크루쇼크원들을 중심으로 전체 분단 동무들의 로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근 농업 협동 조합이나 경험있는 할아버지들을 찾아 가서 피마주, 해바라기 가꾸기에서 얻은 경험들을 듣고 그중 좋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피마주와 해바라기를 학교 둘레에 매 분단별로 나누어 심었는 데 포기와 포기 사이는 삽 한 길이의 간격으로 하고 미리 준비했던 닭똥, 인분, 퇴비 등 거름을 너더댓죽씩 주고 심었습니다.

심은지 약 10일만에 싹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이때 날씨가 계속 가물었기 때문에 싹들이 잘 돋아 나지 못했습니다.

전체 분단 동무들은 매일 아침, 저녁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처 돋아 나지 못했던 포기들에서는 아침마다 새싹이 돋아 나게 되였습니다.

싹이 나와서 일주일쯤 되자 이번에는 돗벌레들이 줄기의 밑둥이를 짜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아침마다 매 포기를 잘 살피여 밤 사이에 돗벌레가 짤라 먹은 자리를 파헤치고 돗벌레를 잡아 주군 했습니다. 우리는 제때에 김을 매 주고 덧거름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잎이 4, 5매쯤 자라게 되자 한 포기에 두대씩 남기고는 모두 솎아 주었습니다.

지금 세벌 김을 매 주고 두번 덧거름을 준 6,000 여 포기의 피마주와 해바라기는 더욱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황북도 신계군 침교 인민 학교 대
신호재

이날 그들의 로력으로 이루어진 3,000 톤급 상선 《텔만 삐오네르》호가 로스톡크 《네쁘튼》 조선소의 선가로부터 바다로 떠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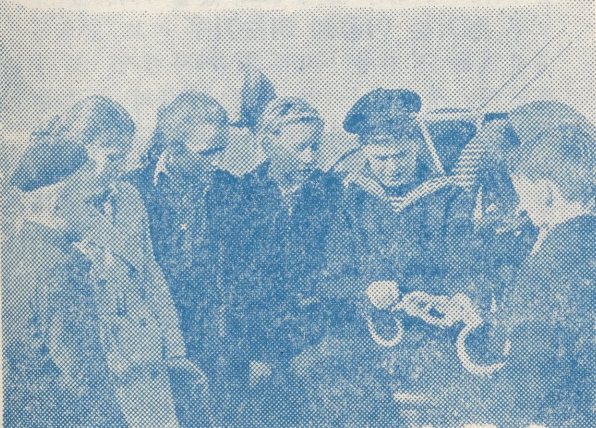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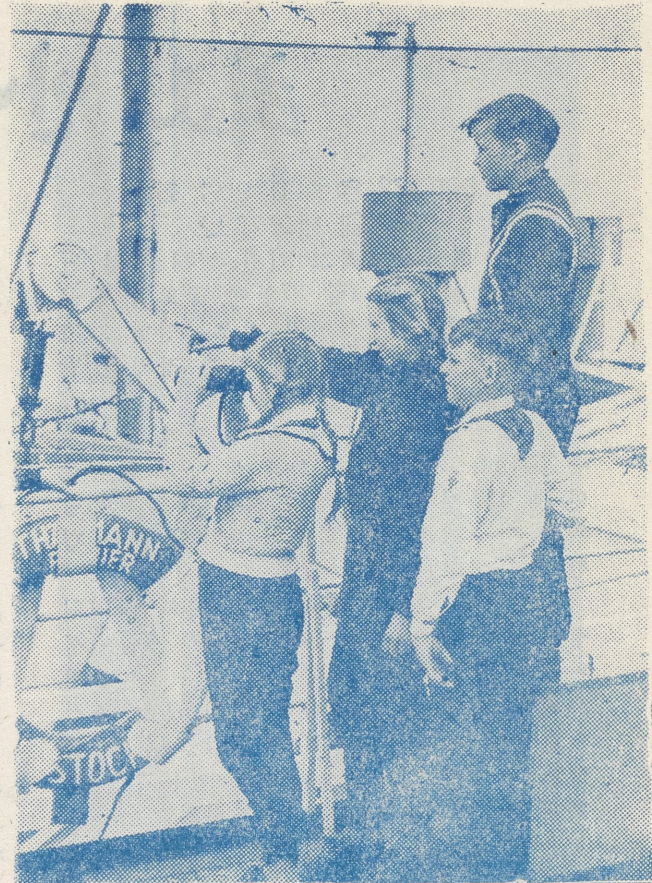
이때 이 배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각지에서 모여 온 모범 삐오네르들이 탔다. 그들은 모두 《텔만 삐오네르》호 상선을 만드는 데 훌륭한 일을 하여 이바지한 모범 삐오네르들이였다. 그들 가운데는 파철을 비롯한 폐품 수집을 잘 한 동무, 약초 채취를 잘 한 동무, 농촌의 추수를 잘 도운 동무들도 있었다.

그들은 학습을 잘 하는 한편 이처럼 훌륭한 일을 하여 모은 124만 3천 467마르크의 돈과 2만 2천 426톤의 파철과 4백톤의 유색 금속을 《텔만 삐오네르》호 상선을 만드는 데 바치였다.

또 이 배에는 이 배의 선원들에게 따뜻한 셰타를 떠서 선물하기 위하여 앙고라종 토끼를 기른 모범 삐오네르도 탔으며 《텔만 삐오네르》호의 기'발을 짜는 데 쓰도록 누에를 친 트레바치 프리들란드 및 리베르제촌의 모범 삐오네르도 탔다. 대선실에 깔 주단을 짠 그리고위스마르시의 모범 삐오네르도 탔다.

이들은 하루 동안 서해(독일의)를 자기들의 로력으로 이루어진 상선 《텔만 삐오네르》호로 일주하였다.

얼마 전에 이 배는 양과를 싣고 애급에도 갔다 왔다.

독일 삐오네르들은 독일 사회 통일당의 가르침에 충실하다.

◇운전사 아저씨에게서 바'줄 맺는 법을 배운다◇

◇ 항해하는 《텔만 삐오네르》호 상선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독일 삐오네르들 ◇

《텔만 삐오네르》호 상선을 단든 것은 그것을 잘 말해 준다. 독일 사회 통일당 중앙 위원회는 인민들에게 공화국의 상선대에 필요한 기선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어린 삐오네르들도 참가하여 파철 수집, 약초 채취 등 나라에 리로운 일을 하여 《텔만 삐오네르》호 상선을 만들게 한 것이다.

상선에 새겨진 《텔만 삐오네르》라는 배 이름과 삐오네르 휘장은 당과 조국을 사랑하는 삐오네르들의 로동에 대한 훌륭한 표창으로 되는 것이다.

이 밖에 베를린시 복구 건설을 잘 도운 데 대하여 당과 정부로부터 찬양 받은 일도 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삐오네르들은 이처럼 학습과 아울러 나라 일을 돕는 것이 곧 사회주의 건설과 독일의 재 통일을 위한 일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포스타

☆ 8월 27일은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

지난 6월 27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는 금년 8월 27일에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전지역에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은 들끓는 기쁨과 감격 속에 이를 한결같이 지지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으로 이날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실시되는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조선 인민이 원쑤와의 싸움에서 피로써 지킨 자기의 주권을 더욱 튼튼히 하며 공화국 기'발 아래 굳게 뭉친 조선 인민들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얼마나 힘차게 나서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 주는 시위로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는 우리의 단결된 힘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한결같은 념원을 다시 한번 시위함으로써 조국 땅 남반부에서 새 전쟁의 불씨를 뿌리려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타격으로 될 것입니다.

☆ 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조선 인민은 1948년 8월 25일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주권 기관을 선거하였고 인민의 나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수립된 첫날부터 우리 인민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길로 힘있게 인도하였으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온갖 원쑤들과 특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침에 있어서 그 위력을 온 세계에 뚜렷이 보이였습니다.

조선 인민은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미제 무력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모진 싸움에서도 온갖 곤난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로동당의 옳은 지도를 받는 조선 인민은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만이 자기들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인민 주권이라는 것을 실지 생활에서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은 불'속에서도 물'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용감히 싸워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조선 인민은 미제의 폭격에 의하여 여지 없이 파괴되였던 도시와 농촌, 공장과 제조소들을 복구 건설하며 공화국 북반부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이 수 많이 건설되였고 도시와 농촌들에는 주택과 학교, 병원, 극장들이 즐비하게 일어서고 있으며 인민 생활은 날로 훨씬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화국 북반부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주의 건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정책의 승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은 그 첫날부터 인민들이 굶주림과 헐벗음에 신음하는 죽음의 땅으로 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테로 통치를 반대하여 일떠나서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공화국을 더욱 열렬히 지지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공화국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튼튼한 터전으로 되고 있으며 그 위신은 더욱 세계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 선거는 어떻게 하는가?

선거는 선거일 6시부터 24시까지 실시됩니다. 선거에는 만 18세 이상의 공민들은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민들은 남자 녀자의 차별, 직업, 재산, 지식의 차이도 관계 없이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선거자들은 비밀 투표로서 진정한 인민의 대표를 자기 뜻대로 직접 선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세금을 많이 무는 사람, 한고장에서 1년 이상 사는 사람이여야만 선거에 참가시킨다는 구실로 근로자들은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권 있는 놈들은 집에서도 하고 또 사무실에서도 선거하는 등 여러번 선거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웃음'거리는 리 승만 도당들의 선거인데 리 승만은 자기와 자기 졸도들만 선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갖은 위협과 탄압을 다하며 그것도 안심이 안되여 앞잡이들을 시켜 몇백 몇천표씩 무더기 투표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우리의 선거가 얼마나 민주주의 선거인가 하는 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전체 인민들 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가장 우수한 대표들을 선거함으로써 우리의 인민 주권을 더욱 튼튼히 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들이 할 일

영광스러운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일가요?

전체 소년단 대 및 분단들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할 일들을 잘 의논하고 방학간 생활과 함께 보다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 이번 선거의 의의와 선거 규정들을 잘 배워서 자기 부모와 이웃 사람들에게 옳게 해설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훌륭한 꼬마 선전원이 될 수 있지요. 잊지 말 것은 지난해 선거 때의 경험을 잘 살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리와 마을의 민주 선전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른들에게 준비한 연예도 발표해 드리면서 그때그때 선거의 의의와 방법들도 해설해 드립시다.

한편 대와 분단들에서는 조선 인민들이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립한 때로부터 지난 9년간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자세히 연구하며 이야기 모임들도 자주 가집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피로써 지켜낸 조선 인민들이 전후 복구 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발휘한 영웅적 투쟁을 훌륭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간에 조직되는 소년단 생활대들에서는 고전부 민청 형님들의 지도를 받아 이와 같은 일들을 잘해 가면서 이밖에 동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서로 의논하여 훌륭히 해 나갑시다.

영수는 그때(1950년) 일곱살이였다.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그는 어머니와 함께 미제 원쑤들에게 붙잡힌 지원군 아저씨를 구원해 냈다. 그 아저씨는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였다.

❋ ❋

추운 겨울은 하루하루 다가 오고 있었다.

38선을 넘은 적들은 운산 쪽으로도 기여 들고 있었다.

적들을 무리 죽음시키기 위하여 인민 군대와 협동 작전을 짠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은 모든 전투 준비를 다 갖추었다. 다만 두번째 정찰을 나간 리 치황 아저씨가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돌아 올 시간이 지났어도 리 치황 아저씨는 돌아 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정찰 나갔던 지원군 한분이 원쑤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부대에 알렸다.

영수와 그의 어머니도 이 소식을 들었다. 영수 어머니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총뿌리를 겨누고 뒤 쫓아 오던 그 백정들에게 그 은인이 붙잡히다니…)

영수 어머니는 며칠 전 일을 생각하였다. 어린 영수를 앞세우고 무거운 몸을 이끌면서 평양을 떠나 먼 길을 후퇴하던 어머니는 지칠대로 지치였다. 운산에 이르러서는 더 걸을 수 없었다. 원쑤들은 뒤쫓아 왔다. 하는 수 없이 잔솔밭 속에서 묵게 되였다. 어머니는 거기서 아이까지 낳지 않으면 안 되였다.

추운 한데에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와 갓난 아이는 급히 구원을 받아야 했다. 영수도 지친 몸으로 한데에서 더 지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였다.

바로 이때 은인이 나타났다. 그 지원군 아저씨는 외투를 벗어 어머니에게 씌워 주고 내복을 벗어 갓난 아이를 감쌌다. 그리고는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영수를 업고 갓난 아이를 안고 어머니를 부축하여 잔솔밭을 헤치고 부대로 돌아왔다. 그는 첫번 정찰에 나왔던 정찰병의 한 사람인 리 치황 아저씨였는데 돌아 오던 길에 갓난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듣고 찾아 온 것이였다. 지극한 간호를 받아 영수와 어머니는 건강한 몸이 되였으나 갓난 아이는 죽고 말았다. 만일 그때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오도 가도 못하고 모두 죽었을 것이다.

영수 어머니는 은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였다. 그는 지원군 부대장을 찾아 갔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 주지 않았으나 끝내 들어 주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지원군 아저씨들이 가는 것보다는 영수와 함께 자기가 가면 의심도 안 받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간절히 부탁하였던 것이다. 어머니는 위험한 때 쓸 수류탄도 한개 받았다.

몹시 추운 날 영수와 그의 어머니는 떠났다. 은인을 구하려 적들 속에 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영수는 위험한 생각보다는 고마운 아저씨를 만날 생각으로 기뻤다. 영수는 자기도 아버지처럼 용감히 싸우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아버지는 평양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총을 들고 싸움터로 달려 나갔고 어머니는 전쟁 승리를 위하여 아버지를 대신하여 공장에서 일하다 떠났던 것이다. 저녁이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 살 더 먹으면 학교 간다고 자랑하던 영수였다. 그러나 오늘 영수는 영수로서 할 수 있는 싸움의 길에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영수는 어머니와 함께 전승리(현재 지역명)로 갔다. 전승리 마지막 집까지 찾아 보아도 치황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서강을 건너 오던 한 늙은 로인으로부터 다행히 지원군 한 분이 갇혀 있는 집을 알게 되였다. 그는 몹시 놈들에게 매를 맞더라는 것이였다.

영수는 정신이 바짝 들었다.

(아저씨는 얼마나 고통을 겪으실가!)

라고 생각한 영수는 기운을 냈다.

서강을 건너 제인리에 다달았을 때 영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다.

《저 집에 아저씨가 있단다. 낫이 보이지! 그것을 가지고 너는 곧장 아저씨 있는 방으로 들어가 아저씨의 팔을 묶은 바'줄를 끊어라! 그리고 아저씨와 같이 부대로 빨리 빠져 가거라 응! 어머니는 미국놈들을 피여 낼테니까!》

이윽고 그들은 아저씨가 감금된 곳에 다달았다.

영수의 어머니는 미국 보초병 앞에 가서 무어라고 고함도 치며 손짓을 했다. 그 바람에 뜰안에있던 놈들 다섯이 뛰여 나왔다. 그 사이에 영수는 어머니가 가르쳐 준대로 몰래 아저씨가 있는 방으로 뛰여 들어 갔다. 그리고 영수는 치황 아저씨를 동여 맨 바'줄을 끊었다. 치황 아저씨는 영수를 업고 부대로 뛰였다.

그때였다. 구원되여 부대로 돌아가는 아저씨를 본 미국놈들은 고함을 지르며 총을 내들었던 것이다. 이때라고 생각한 영수 어머니는 가슴에 품었던 수류탄을 뽑아 들었다. 그 순간이다. 요란한 폭음 소리에 리 치황 아저씨는 뛰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보았다. 바로 자기가 갇히여 있던 집 쪽에서 수류탄이 터진 것이다.

치황 아저씨의 등에 업혔던 영수는 《어머니!》하고 소스라쳐 울먹이였고 치황 아저씨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인민군 아저씨들과 지원군 아저씨들은 미국놈들을 포위하고 섬멸전에 들어섰다.

리 치황 아저씨는 부대 선두에서 싸우면서 영수 어머니를 찾았다.

영수 어머니는 장한 일을 하고 돌아 가셨다. 주위에 나자빠진 미군 다섯놈의 시체는 영수 어머니가 한 장한 일을 말해 주고도 남았다. 그리하여 영수는 어린 몸으로 은인의 은혜를 갚았고 그의 어머니 안 옥희 녀성은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았다.

그림 림 영환

불행한 남반부 소년들을 힘껏 돕자!

—미제와 리 승만 통치하에서 헐벗고 굶주려 떠 다니는 남반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조선 소년단 평양 제2 중학교 대 모임에서—

박 정 렬

며칠전부터 남반부 어린이들의 생활에 대한 시사 이야기 모임이 있다는 소식은 이 학교 대 소년단원들의 마음을 끌었다. 한시도 잊은적 없고 동정해 마지 않는 남반부 동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며 어떻게 배우고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늘 생각해 왔었기 때문이다.

참말 중앙 민청 학생 소년부장 선생님의 이야기는 소년단원들을 놀라게 했었다.

아침부터 씨원히 소나기가 지나서 거리와 학교도 깨끗이 단장한 날 오후다.

패거리를 지어 운동장으로 나오며 큰소리로 이야기들을 주고 받는 소년단원들은 자못 흥분한듯 얼굴까지 상기되여 있었다.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이는 남조선 어린이들

《미국놈들만 아니면 우린 벌써 통일됐을거야》.

《거야 물론이지 모두다 미국놈과 리 승만 도당 때문이지 뭐》.

여느때에는 말참견을 잘 들려고도 않던 리 계준 동무도 목소리를 돋우며 이야기했다.

《그것 보지 학교에 돈을 못내여 열세살난 아이가 자살까지 한걸…》.

《정말 불쌍해. 글쎄 거리에서 헤매고 다니는 고아들만 해도 20여만명이나 된다지 않어》.

이들은 얼마전에 중앙 민청 학생 소년부장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남반부 어린이들의 가엾은 모습들이 눈 앞에서 어물거리는 것만 같다고들 하였다.

× ×

이튿날이였다. 우 현옥 동무는 어제 저녁 자기 분단에서 있은 이야기도 전할겸 대열성자로서 제의할 문제도 있고 해서 대 위원장 동무를 찾았다.

현옥 동무는 12분단인 자기 분단 동무들이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서 남조선의 쌀 떨어져 굶주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백미 10만석을 보내 주기로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힘으로 남조선 어린이들을 도울 수 없겠는가고들 말한다는 것이였다.

대 위원장 동무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곧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에게 알렸다.

이리하여 대열성자 모임에서는 집 없어 헐벗고 굶주려 떠다니는 남반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대 모임 준비를 하게되였다.

7월 5일 오후 4시였다. 2,000여명을 대표한 600명의 소년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모임…크고 화려한 서문 청년 구락부에서 자기들의 모임을 가지는 소년단원들! 그들은 공화국의 따뜻한 품에서 자라며 배우는 기쁨과 행복을 자랑하고 있다.

대 기'발이 입장하자 대 모임은 시작되였다.

먼저 대 위원인 리 영래 동무가 이야기했다.

김 일성 원수님이 령도하시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자라는 우리들은 지금 즐거운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경치 좋은 야영소로 가며 행군을 떠나는 벅찬 기쁨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남반부 소년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남반부에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90여만명 소년들이 학교에 못가고 있으며 끼니를 굶는 소년들이 50만명이나 된다. 또 간신히 학교에 다니는 소년들도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받아 내는 돈을 못내여 학교에서 쫓겨 나고 있다.

이것은 모두 누구 때문인가? 승냥이 같은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 때문이다.

놈들은 《유엔군 사령부》를 서울에 끌어 들여 오고 또 정전 협정을 제멋대로 파괴하려고 날뛰면서 새 전쟁을 꿈꾸고 있으며 남반부 인민들과 소년들을 더욱 불행한 구렁에로 몰아 넣고 있다.

우리 조국은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하며 그래야만 남반부 소년들도 우리처럼 행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은 있는 힘을 다 바쳐야 한다.

끝으로 리 영래 동무는 이렇게 호소하였다.

《우리 소년단원들이 굶어서 쓰러져 가는 남반부 어린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영예로운 의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편지와 교편물, 연예 써클 등을 서로 교환하며〈꼬마 5개년 계획〉 활동과 학용품을 아껴서 얻은 돈으로 그들을 도와야겠습니다》. 리 영래 동무의 이야기가 끝나자 소년단원들 가운데서 《미제는 조선에서 물러 가라!》는 힘찬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잠시 동안 회의장은 떠나 갈 듯이 어린 심장들을 불태우는 웨침 소리로 들끓었다.

뒤이어 많은 동무들이 북받쳐 오르는 뜨거운 마음으로 리 영래 동무의 이야기를 찬성하는 토론들을 했다. 고향이 남반부인 김 명자 동무는 7년 전에 서울에서 《국민 학교》를 다니면서 겪은 가지가지의 기억들을 더듬으며 미제와 리 승만 괴뢰 도당의 만행들을 폭로했다.

그때 그의 부모는 조국의 통일 독립을

미군은 소년을 쏘아 죽였다

그들은 학교에 못간다

남조선에서 리 승만 괴뢰 도당들이 떠벌리고 있는 《아동 의무 교육 6개년 계획》을 실시한다는 《국민 학교》에서만 해도 취학 못한 어린이들은 909,447명이나 된다.

학생들을 내쫓는 학교

서울시 덕성 녀자 중학교에서는 재학생 한사람에게서 공납금 11,350환을 받아 냈으며 신입생에게서 55,700환을 받아 냈다. 이것을 못낸 100여명의 학생들을 학교에서 쫓아 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전북 익산군 팔봉면 팔봉리 당산부락 농민 최 덕환의 둘째 아들 최 기봉은 리리 중학교 2학년인데 지난 3월말부터 쌀이 떨어져서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자 최근에 자기집 방안에서 목매여 죽었다.

돈 못내여 죽은 녀 학생

충청 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실홍동 조만식의 맏딸 조 영자는(13세) 조치원 대동 《국민학교》 6학년 생인데 항상 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했으나 3개월분 사친회비를 못내서 담

위해 싸웠다. 때문에 명자 동무네는 놈들의 감시를 받아 마음 놓고 살 수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 다섯 식구가 한집에 모여 기쁨을 나누며 날마다 웃음꽃이 피여 오르는 행복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명자 동무는 남조선 어린이들의 비참한 생활 형편을 생각할 때마다 피의 눈물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우리의 이 행복을 짓밟지 못하도록 우리도 힘껏 싸우며 열심히 배웁시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페품 수집 등 나라에 리로운 일을 해서 얻은 돈과 학용품들을 아껴서 남반부 어린이들을 힘껏 도웁시다》.

인민반 5학년인 백 철 동무는 하루바삐 남조선의 불행한 소년들도 우리와 같이 훌륭한 학교에서 배우며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벗들과도 서로 편지와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데 한 나라 한 형제들인 우리들 사이에는 왜 편지도 보낼 수 없단 말인가, 그는 미제와 리 승만 통치하에서 신음하는 남반부 어린이들을 우리들의 손으로 구원하자고 기운차게 호소하였다.

그리고 12분단의 리 영자 동무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 했다.

《미제놈들은 나의 부모를 빼앗아 갔습니다. 나는 이 원쑤를 갚기 위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것 없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전쟁이 다시는 없기를 원합니다. 새 전쟁을 일으켜 보려고 놈들이 제 아무리 날뛰여도 우리를 놀래울 수는 없을 겁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웽그리야에 폭동을 일으키고 애급에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국 패하고 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열심히 배워서 모두다 애국자로 됩시다.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페품 수집, 로력 협조 등 훌륭한 로동을 통해서 남반부 전재고아들을 도와줍시다》.

다음에 황 태원 동무는 남반부 어린이들과 편지를 교환하도록 힘쓰며 한달에 연필 두자루와 학습장 한권씩을 아껴서 그들에게 보내줄 것을 결의했다.

모임에서는 많은 동무들의 이야기들을 찬성했다 그리하여 조국의 훌륭한 일'군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면서 남조선의 불행한 어린이들을 힘껏 도울 데 대한 대 모임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대모임 결정에는 공화국의 전체 소년단원들이 남반부 소년들을 사랑하며 도와줄 데 대한 한결 같은 마음이 들어 있다.

깡통을 찬 남반부 고아들

임 교원 림 익수의 심한 꾸중을 들었다. 학교에 바칠 500환을 구하지 못하고 실망한 나머지 그는 유서를 남기고 우물에 빠져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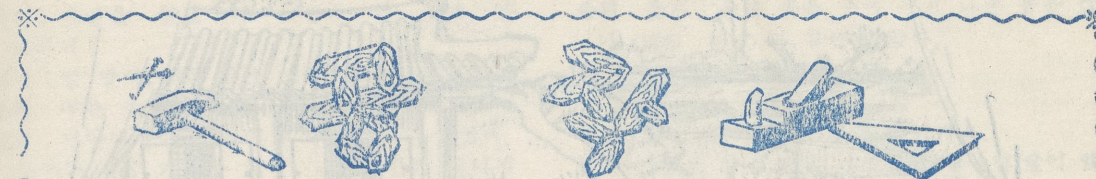
굶주림 때문에…

남 강원도 백성 《국민 학교》 학생들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등나무 껍질을 칡뿌리로 알고 먹은 결과 27명이나 중독에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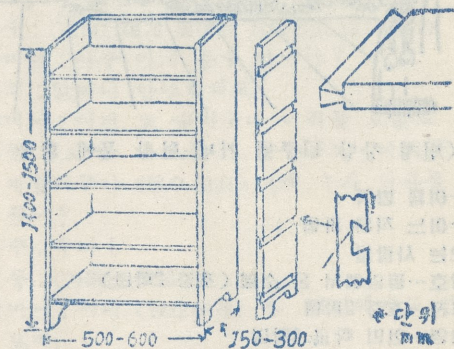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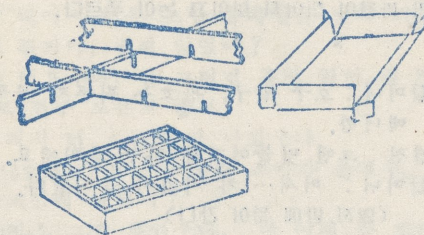
사람 사냥하는 미제

1957년 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앞길에서 미군 제 10 포병대 소속 1등병은 달리는 트럭에 매달렸다고 어린 소년을 총으로 쏘았다.

방학 동안 동무들이 만들어 보십시오

표 본 함

ㄱ. 재료—마분지를 갖추면 된다.

ㄴ. 만드는 방법—우선 곽부터 만든다. 다음 칸을 만든다. 이것은 곽 높이 만큼한 넓이의 마분지를 그림과 같이 세로 대는 것과 가로 대는 것을 엇바꾸어 어져서 맞춘 다음 곽에 넣으면 된다.

책 장

ㄱ, 재료—두터이 20~25mm의 널판자(량 옆 대와 가름'대)와 10~15mm의 널판자(뒤에 대이는 판자)를 갖춘다.

ㄴ. 만드는 방법—홈을 파서 서로 맞추어 만들 수도 있고 못을 박아 만들 수도 있다.

우선 량옆에 대는 널판자에 제비 꽁지(그림을 보라) 모양으로 홈을 판다.

다음 가름'대의 량끝을 량옆 대의 홈에 알맞게 깎는다.

맞출 때 먼저 가운데 가름'대부터 그 다음은 그 아래 우, 마지막에 맨 아래 우의 순서로 맞춘다. 나중에 뒤'판자를 댄다.

간단한 의자

ㄱ. 재료—굳은 나무와 두터운 천을 갖춘다.

ㄴ. 만드는 방법—높이는 자기 앉기 좋게 넓이는 25~30cm가 되도록 만든다. 먼저 두개의 틀부터 만드는 데 될 수 있는 대로 구멍을 파서 서로 맞추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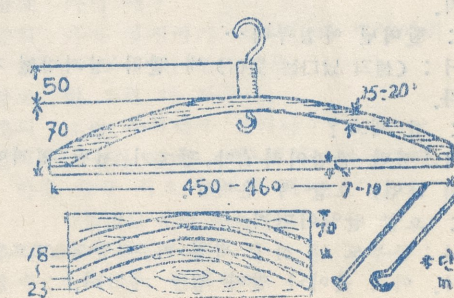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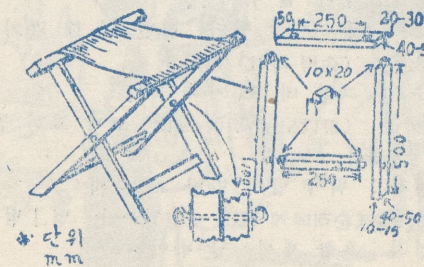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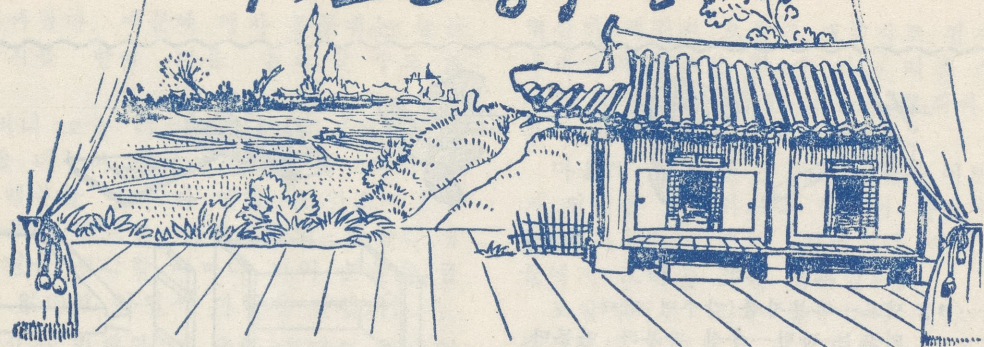
다음 두 틀을 그림과 같이 다리 가운데 구멍을 파고 구멍에 맞는 쇠줄을 꽂아 맞춘다.

마지막에 천을 대인다.

옷 걸개

ㄱ. 재료—길이 45~46Cm 두터이 25mm의 매끈하게 대패질한 널판자와 가는 참대, 직경 3~4mm의 쇠줄을 갖춘다.

ㄴ. 만드는 방법—먼저 판자에 그림과 같이 선을 치고 실톱으로 선을 따라 베여낸다. 가름'대는 까풀이나 못을 박아 붙인다. 다음 쇠줄을 낚시처럼 구부려서 가는 참대를 꽂고 옷 걸개 한 복판에 꽂는다.

희곡 새로운 동무들

(민청 창립 11주년 기념 현상 문예 희곡 1등 당선 작품)

박 명 철

때—여름 방학
곳—어느 적은 마을
나오는 사람들
  광호…평양에서 온 소년 (초중 2학년)
  영진…초중 2학년
  석영…인민 학교 4학년
  순희…초중 1학년
  승호…초중 2학년
  용수…유치원 어린이
  소녀 1, 2,
  영진의 할머니

무대 아담한 새 기와집이 오른 편에 놓여 있고 그 뒤에 낮은 언덕, 언덕 아래 가름 길이 놓여 있다. 멀리 마을이 틔여져 보이고 논이 푸르다.

×

제 1 막

막이 오르면 새들이 지저귀는 화창한 날 아침, 할머니 마당을 쓸고 있다. 멀리서 아이들이 고아대는 소리.

할머니: 이앤 아침부터 또 어델 갔노. 시간도 다 됐는데.
(영진, 석영, 가름'길로 나온다.)
영진: (꿰여맨 새를 들어 보이며) 어때 멋지지.
석영: 나도 한 마리 줘.
영진: 쳇 비웃대기구나.
석영: 넌 내가 심부름 가는 걸 데리구 가구선…
영진: (주먹을 내 휘두르며) 왜 이리 까박이냐!
석영: (뾰루퉁해서) 좋아! 난 너하구 죽어두 안 놀래 (휙 나가 버린다).
영진: (쫓아 가며)내 말 안 들었단 봐라 (주먹질)
할머니: 얘야 너 그게 뭐냐, 어린애 보구.
영진: 그애가 왜 어린애애요. 인민 학교 4학년인데.
할머니: 그래두 너보다 작지 않니?
영진: 작은 녀석이 말 잘 안 들으니깐…
할머니: 그래선 못 쓴다. 잘 타일러서 배워 줘야지.
영진: 할머닌 아침부터…
할머니: (생각 났다는 듯이) 얘 빨리 정거장엘 가 봐라.
영진: 전 왜요?
할머니: 저런 깜깜이라구야, 광호가 전번 편지에 쓰지 않언, 오늘 꼭 온다구.
영진: 오늘 팔일이던가…
할머니: 공부도 안 하구 세월 가는 줄도 모르는구나. 어서 옷이나 갈아 입구 가거라.
영진: 할머니, 그애가 꼭 올가요?
할머니: 오구 말구, 광호는 뭐든지 꼭꼭 지키는 애니깐.
영진: 그앤 멋들어지게 하구 올거예요.
할머니: 어서… 차 시간이 늦어질라.
(영진 방에 들어 간다)
영진: (소리만) 할머니, 내 모자 어떻겠어요?
할머니: 네 모잘 내가 끼고 다니니…
영진: (우는 소리로) 씻 모자 말이예요.
할머니: 찬찬히 얻어 봐라.
영진: (방문을 홱 열고) 그만 둘래!
할머니: 아니 네 모잘 네가 거뒀겠지 어떻겠겠니.
영진: 방에다 뒀는데 뭐……
할머니: 광호가 낯선 길을 어떻게 올라구……어서 다시 찾아 봐라.
영진: 씻…그앤 모자두 양복두 번듯하게 차리구 올텐데.
할머니: (화가 나서) 그만 둬라……내가 가겠다. (나가다가) 마당이나 말짱 쓸어라.
(할머니 나간다. 영진 미안적해서 마당을 쓴다)
용수 <토끼 잡아라 용용용…>하며 뛰어 나온다.
뒤따라 순희 나온다.
용수: 누나 잘 뛰지?.
순희: 응 참 잘 뛴다. 한번 더 해 볼가.
용수: (손벽 치며) 좋아!
순희: 그럼 내 또 거북이다.
용수: (마당으로 뛰어 오며) 토끼 토끼 잡아라 용용용!
영진: 뭐야 남이 마당 쓰는 데
용수 (순희에게 달려 오며) 누나 범! 범!
영진: 요놈 새끼, 날 범이래?
순희: 넌 뭘 하니?
영진: 눈이 없니?
순희: 마당을 쓸댔구나… 근데 넌 논에 안 나가니?
영진: 말 말어, 우리 집에 오늘 손님이 온단다.
순희: 무슨 손님?
영진: 평양에서 우리 조카가 와! 그앤 너 멋있다. 구두두 신구 가방두 들구 너희들한테 섞이지 않을거야.
순희: 정말?
영진: 내가 언제 거짓말하던. 그래서 난 마당을 깨끗이 쓸구 있어.
순희: 좋겠구나.
영진: 말할게 있니? (용수 보고) 너 이제 나한테 까불대면 평양엘 못 가.
용수: 난 순희 누나하구 가지.
영진: 말 대'구하기가.
순희: 그러지 말어, 앤 내가 맡았으니깐.
영진: 쳇 꼬마 대장 되구 싶은 모양이지.
순희: 넌 우리가 꼬마 대장 되구 싶어 그러는 줄 아니? 대에서 협동 조합 유치원을 방학 기간 맡기로 한거야, 벌써 잊었니?
영진: 야 떠드누나, 난 그런건 흥미 없어, 내 마음 대로 뛰구 노는게 좋지.
순희: 그래서 넌 오늘도 안 나갔구나.
영진: (당황해서) 아니야 우리 조카가 온대두.
순희: 승호한테 말했니?
영진: 옳지! 그걸 잊었구나, 내 이제 곧 갔다 올테니 우리 집 좀 봐 줘.
순희: (생각한다) 용수야 우리 여기서 좀 놀가. 영진이가 갔다 올 때까지.
용수: 누난 가지마
순희: 난 안 가. (영진이 보고) 얼른 갔다 오너라 (영진 좋아하고 나간다).
용수: 누나 용용 해…
순희: (마당을 쓸다 만 것을 보고) 용수야 우리 마당을 쓸가? 여기 이 나쁜 놈은 미국놈이야. 누가 나쁜 놈을 많이 없애나 내기 할가.
용수: 응…(비를 들었으나 무거워서) 누나 무거워 무거워.

순희: 옳지! 용순 돌을 주어 여기 나쁜 놈을 잡아 (돌을 줏고) 봐, 한놈 잡았다.
용수: 응 나도 잡을래.
—사이—할머니, 광호 등장
광호: 할머니 여긴 참 좋은 곳이예요.
할머니: 좋구 말구, 버들 가지들이 늘어진 숲이 있지. 저 논판두 보지 조합 논이란다.
용수: (할머니에게 뛰어가 끄덕이며 인사한다)
할머니: 아구 이게 용수 아니냐?
순희: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건 또 순희구나 너희들 오늘도 유치원 일보기 욕보누나, 용수놈도 너희들 땜에 제법이구나 (용수 보고) 그래 누가 인사를 배워줬니?
용수: 누나!
일동: (가벼운 웃음).
할머니: 어디 (광호에게) 이 형님에게도 인사해 보지.
용수: (섬짓해 서 있다)
순희: 용수야, 할머니 말 들어. 소년단 경례 《준비하자!》구
용수: 준비하자!
일동: 하…하…
광호: (손목을 잡고) 너 참 귀엽구나, 몇살이지?
용수: 여섯살
광호: 응, 그럼 이제 너두 소년단원이 될테냐?
용수: 아니야 난 관리 위원장 될래.
일동: 하…하…
할머니: 그놈 봐라 제법인걸.
순희: 평양에서 오누라구 혼났구나.
광호: 뭘, 난 삼춘네 집에 퍽 오구 싶어 했단다.
할머니: (순희 보고)넌 그걸 어떻게 아니?
순희: 영진이가 그랬어요.
할머니: 그앤 어딜 갔니?
순희: 승호한테 갔어요. 손님이 온다구 못 나간다구요.
광호: 승호가 누구냐?
순희: 우리반 반장이란다. 우린 방학에 조합 논 김매기를 도와 주기로 했으니깐.
광호: (끄덕이며) 좋은 일을 하는구나.
순희: 넌 우리하구 안 놀겠구나.
광호: 아니 왜?
순희: 아까 영진이가 그러던 데 평양에서 온 애는 우리하구 안 놀거라구.
광호: 별 소리 다 하누나.
순희: 그럼 우리하구 놀테냐?
할머니: 우리 광혼 그런 애가 아니란다. 어서 마음 놓구 서로 놀도록 해라.
(멀리서 조합 종소리)
순희: 휴식종이구나.
용수: 누나 가, 엄마한테,
순희: 응, 그럼 또 올게, 평양 이야길랑 해 줘!

광호 : 응.

(순희 용수 업고 나간다.)

할머니 : 자 어서 방에 들어가자.

(할머니 부엌으로 들어간다. 광호 마루에 걸쳐 앉아 신들메를 풀려다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넓고 푸른 저 하늘에
승리의 기'발 높이 날리고
나가자 씩씩한 조선 소년단

(승호, 소년 ① ② 씩씩하게 들어 온다)

승호 : 영진아! 영진아!

광호 : 누굴 찾니?

승호 : 영진일! 넌 누구냐?.

광호 : 난 평양에서 왔단다. (악수한다.)

승호 : 야! (손을 내밀고) 너 먼 길 왔구나.

광호 : 여긴 참 좋은 곳이야.

소년① : 평양엔 새 건물이 많이 선다지!

광호 : 응, 큰 건물이 해방탑 아래에 그득 섰단다. 전쟁 전의 몇배 커졌지.

승호 : 야!

광호 : 거리엔 가로등이 꽃발처럼 놓이구 또 밤낮 거리엔 숱한 사람들이 일하려 간단다.

승호 : 너희들 학교는 어때.

광호 : 우리 학교 말이냐? 우리 학교는 로동자아저씨들이 정전 직후에 세워 주었는데 아주 멋지단다. 우린 여러 크루쇼크를 조직하고 학과의 많은 걸 배우구 연구한단다.

승호 : 그래 넌 무슨 크루쇼크에 들었니?

광호 : 난 음악 크루쇼크원이야.

승호 : 그래!

소년① (손벽 치며) 마침 잘 됐어. 우리 반엔 노래를 잘 부르는 동무가 없단다. 너 우리 일을 도와 줄래?

광호 : 좋아! 나도 소년단원이야.

승호 : 정말!

광호 : 그럼.

소년② : 참 기쁘구나. 새로운 동무를 만났으니.

광호 : 그리구 난 복구되는 평양 그림도 많이 가져 오구, 이야기도 할 수 있단다.

승호 : 그럼 모임드 조직할 수 있구나.

광호 : 너희들의 대 사업도 많이 배워 줘.

승호 : 응. 우리들도 마을 일을 돕는데 다 같이 나섰단다.

소년① : 다 같이가 뭐야 영진이가 빠졌는데!

광호 : 영진인 아까 너희들한테 갔다고 그랬는데

승호 : 아니…?!

소년① : 어딜 갔을가?!

소년② : 그앤 야단이야 대위원회에 알려서 의논해야 겠어.

승호 : 가만 있어.

소년② : 한두번이게, 일하기 싫어하는 눈은 밥통이지 뭐야.

승호 : 그래도 그앤 무슨 생각이 있을거야.

소년② : 생각이 다 뭐야 방학이니깐 제멋 대루 한다지 않어.

소년① : 평양에도 이런 애가 있니?

광호 : (망서리다가) 영진인 소년단 생활을 안 하니?

소년① : 응…

소년② : 그애 때문에 야단이다.

승호 : 너희들 함부로 지꺼리지 말어, 그애도 뉘우칠 때가 있을 거야.

소년② : 넌 자꾸 그엘 감싸 주니 그렇지!

소년① : 야단 났구나.

(영진, 석영 싸움질하며 들어 온다.)

석영 : (울면서) 싫어! 엄마한테 욕 먹어.

승호 : (나서면서) 뭘 그러니?

석영 : 영진이가 새총알을 주어 오라구 막 주먹질을 하지 않어.

영진 : (주먹질을 하며) 요새끼!

석영 : 안 그랬니?

영진 : 떠드누나.

광호 : 영진아!

영진 : 아 광호야! (악수하고) 야 넌 멋지구나.

(모자를 빼앗아) 어디 한번 써 보자. 애들아 어때.

광호 : 인줘

영진 : 좀 써 보자꾸나.

소년② : 영진아 넌 또 장난 놀러 갔댔구나.

영진 : 천만에, 오늘 우리 광호가 평양에서 오기 때문에 못 갔지 뭐.

광호 : (속으로 웃으며) 나 때문에?

영진 : 그럼 뭐!

승호 : 난 네가 정말 솔직한 아이가 돼서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어.

영진 : 또 무슨 걱정이야.

소년② : 그럼 뭐야, 우린 다 일 돕기에 나섰는데 너 혼자 빠지다니… 그것도 사람이야

영진 : 째째스러 놀지 말아, 내가 그런 일 한다니, 홍 거야 어른들이 하지 않으리.

승호 : 그게 아니야, 어른들의 일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영진 : 그러기 좋은 사람만 하려므나. 난 싫으니까 안 하지.

소년② : (별이 플러서) 뭐야! 그래 어린애들은 때리구 장난 쓰는 게 일이란 말이냐.

승호 : (말리며) 왜 그러니 참아.

소년② : 밸 플리게 노니깐 그러지.

영진 : 분해 죽겠니? 그래 내가 너희들 속을 건드렸니?

광호 : 영진아 넌 소년단원이 아니냐?

영진 : 너도 날 그러니?

광호 : 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영진 : 넌 알기나 하구 그러니, 평양과 여긴 달라.

광호 : 소년단원도 다르겠니?

영진 : 다 알아 (뛰여 나간다)

광호 : (결심하면서) 난 너희들 속에서 일을 많이 할래.

승호 : 고마워

(막)

제 2 막. 제 1 장. 같은 장소.

광호 글을 쓰다 놓고 마당에 나와 몸 운동을 한다. 순희 빨래를 들고 나온다.

광호 : 순희야 어델 가니?

순희 : 빨래하러.

광호 : 오늘 유치원에 안 가니?

순희 : 이봐 복실이네 아버지가 아직 야단이란다.

광호 : 복실이?……저 집에서 조합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 애 말이지?

순희 : 응. 그래 아버지하구 어머니가 오늘 아침 막 싸웠단다.

광호 : 왜?

순희 : 개네 집에는 참 일이 많이 밀렸단다. 그래서 그애 어머니가 복실이 보구 빨래를 해 오라고 하니까 그애 아버지도 속상해서《앨 가지구 뭘 그리 야단이냐》고 했대. 그래서 싸움이 일어 났지.

광호 : 거 안 됐구나.

순희 : 그래서 난 오늘 유치원 일은 그단 두고 복실이하구 빨래하려구 그래.

광호 : 승호도 아니?

순희 : 아——니.

광호 : 왜 알리지 않았니?

순희 : 복실이넨 개인농이 아니가, 그러니 승호에게 알리나 마나 하니깐.

광호 : 거 딱하구나.

순희 : 난 그래도 복실일 생각하니 정 못 참겠어. 유치원에야 다른 아이들도 있으니까.

(순희 나간다.)

광호 : (깊이 생각하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 (나오며) 왜 그러냐?

광호 : 할머니, 조합에 들지 않은 집 논에 가서 일해도 일 없을가요?

할머니 : 그게 무슨 말이냐?

광호 : 저…우리 소년단원들 말이죠, 조합에 들지 않은 집'일을 돕자는 기죠.

할머니 : 거 좋은 생각이구나.

광호 : 근데 할머니! 왜 복실이네는 조합에 들지 않았어요?

할머니 : 아마 차차론 들겠지. 그집이야 소 달구지 있는데 조합에 내 놓길 아까워서 그러는 게지.

광호 : 그럼 왜 조합에 들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할머니 : 조합에 들고 안드는거야 제 생각에 달린게지, 실상 처음에 말썽을 부리던 사람들도 한해 농사를 지어 놓고 쌀섬을 듬뿍 받으니 《조합이 좋긴 좋구나》 그러지…

광호 : 할머니 나 승호한테 갔다 오겠어요.

할머니 : 그래라. 한 사람의 손보다 열 사람의 손이 나을테니깐.

광호 : 오늘은 영진이도 꼭 같이 갈래요.

할머니 : 그럼, 함께 가야지.

광호 : 갔다 오겠어요.

(광호 뛰여 나간다.)

영진 : (방에서 나오며) 야! 잘 잤다.

할머니 : 넌 이게 뭐냐? 해가 늦도록…

영진 : 고단한걸 어떻게 해요.

할머니 : 광호 좀 봐라! 그앤 아침 공부 마치고 아이들한테 갔단다.

영진 : 씨…할머닌 그저 말끝마다 광호 광호야.

할머니 : 그렇게 안 됐는가 봐라 아이들이 갤 얼마나 따르게, 전번두 조합 아저씨들에게 평양의 이야기랑 노래랑 배워 드렸단다. 여간 칭찬들이 아니니깐.

영진 : 그앤 평양서 왔으니깐.

할머니 : 평양서 왔다구 그렇겠냐? 다 제 나름이다. 어서 아이들한테 가 봐라!

영진 : 싫어! 난 고단해 죽겠는데.

할머니 : 아침 먹고 한잠 늘어지게 자군 또 그성화냐? 아버지께 당장 일러 바쳐야지 원! 버르장머리 없이……

영진 : 할머니 좀 가만 있어요. 방학이 어떤건지 할머닌 알구나 그러세요?

할머니 : (화가 나서)어서 마음 대로 해라. (부엌으로 들어 간다)

영진 : (책상에서 책을 펼쳐보다가)이건 뭐야 옳지 광호가 쓴게로구나, (읽는다)-오늘은 조합 논 김매기를 하였다. 아저씨들에게 비하면 형편 없이 우리 손이 뜨다. 모를 다칠세라 정성스레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참 마음에 든다. 그때마다 나는 일이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런데 영진이가 참가하지 않은 것이 섭섭하다.
그앤 왜 그럴가? 왜 일하기를 싫어할가?…(읽기를 그만 두고) 이건 뭐야 광호녀석이 삼촌을 비판하는구나 (다시 읽으며) 일하지 않는 애는 기생충과 같다. 나 그애 버릇을 꼭 고쳐 줄테다…뭐 기생충? (책을 내려치며) 어디 보자. 평양에서 왔다구 우쭐대누나.

(광호 승호 들어 온다)

광호 : 난 절대로 좋다구 봐.

승호 : 애들이 말을 들을가.

광호 : 우리가 잘 얘기하면 들을거야, 우리가 나쁜일을 한다면 몰라도 그 아저씨네 집'일을 하면 그 아저씨도 퍽 좋아하실게 아니가, 또 우리 집단의 힘도 보여 주구.

승호 : 좋아! (영진이 보고) 영진아, 너도 오늘은 꼭 참가해.

영진 : 뭘 말이냐?

광호 : (다정하게) 영진아, 우린 오늘 복실네 논 김을 매러 가기로 한단다.

영진 : 뭐? 그 애네 집은 개인농이 아니야?!

광호 : 응 우리 한번 집단의 힘을 보여 줄만도 하지.

영진 : 엉뚱한 생각 다 하누나. 너희들이 일해 준다구 될거 아니야, 그건 어른들이나 할 일이야.

광호 : 아니야, 난 꼭 도와야 한다구 봐.

영진 : 너희들이나 도우렴.

광호 : 넌 뭘 할래니?

영진 : 난 오늘 계획이 따로 있어.

승호 : 너 생각해 봐, 광훈 우리반 동무가 아니라도 사업에 얼마나 열성을 내고 있니?

영진 : 낼테면 내라지.

광호 : 영진아! 그러지 말어. 난 너 때문에 참 부끄럽구나.

영진 : 위신이 떨어지니? 너희들 할 일이나 하렴. 내 일엔 비치지 말구.

광호 : 비꼬지 말구.

영진 : 뭐야 아침부터 할머니께 욕을 먹이게……또 뭘 날 기생충이라구.

광호 : 영진아, 난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영진 : 날 생각하는 게 겨우 그거냐?

광호 : 난 승호랑 순희랑 참 여기서 새 동무들을 봤단다. 얘들은 훌륭한 애들이야……그런데 너만은……

영진 : (말을 가로 채며)기생충이란 말이지!

승호 : 광호 동무의 말이 꼭 옳아!

광호 : 우리하구 함께 일하자우.

영진 : (비꼬는 양으로)난 고단해 죽겠어.

광호 : (결단적으로)좋아! 넌 우리하구 섞이지 않아도 좋아! 너 때문에 소년단 사업은 머무를 수 없어, 승호야 우리 관리 위원회에 가서 복실이네 일을 돕겠다구 알리고 가자.

승호 : 응.

(광호, 승호 나가자, 석영 들어 온다.)

석영 : 영진아.! 광호 어디 갔니?

영진 : …몰라……

석영 : 어제 이야기하던 걸 계속해 달라구 왔어.

영진 : 너희들은 밤낮 평양 이야기야.

석영 : 넌 듣고 싶지 않니? 누나들이 기중기를 다루며 새 집들을 척척 세운다는데 정말 평양엘 가구퍼(나가려 한다)어디 갔을가?

영진 : 석영아, 그따위 이야기보다 고기 잡이 더 좋지 넌 안 갈테니?

석영 : 싫어.

영진 : 많이 잡으면 절반은 줄게.

석영 : 싫어, 난 광호의 이야기 들을래.

(뛰어 나간다)

영진 : 싫으면 그만 두라지……

(영진 혼자 그물을 꺼낸다.)

—사이—

영진 : (나가면서)난 고기 잡이 갈테야. (암전)

제 2장

조합 종소리

광호, 승호, 소년들 ① ② 따라 등장.

소년① : 아이 더워. (땀을 씻는다)

광호 : 너 참 일 잘 해.

소년① : 너두 처음엔 참 서툴렀지만 이젠 멋 있게 해.

광호 : 할수록 재미가 나는 걸.

승호 : 거 꼭 그래.

소년② : 그런데 우리보다 복실네 아버지가 더 좋아하시지 않던.

광호 : 응 기쁘신게지.

승호 : 안 기쁠 택이 있니.

광호 : 우리가 일 돕길 잘 했어.

승호 : 관리 위원장 아저씨도 여간 좋아하시지

않던! 그런 걸 보니 복실네 아버지도 빨리 조합에 들어야 할텐데. 광호야 그렇지?

광호 : 그럼 뭐.

소년① : 조합이 얼마나 좋은 게라구……이봐, 우리 아버지가 조합에 들더니 (자기 내의를 보이며) 이걸 척 해 주던데 뭐.

소년② : 우리 집에선 시간 맞춰 밥을 하니 난 이번 학기엔 지각이 한번도 없어졌어.

승호 : 그래 넌 지각을 잘 했지…

소년② : 그러기에 우리 아버지도 이 동네에 조합이 조직되니 아이들이 여간 공부를 잘하구 또 훌륭해지는지 모르겠더라 하시지 않겠니.

승호 : 우리 아버지도 그래.

소년① :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일하는 걸 복실네 아버지가 보시더니 부러운 모양이더라.

승호 : 우리 주먹은 적지만 일'손이 딱딱 맞춰지니 그렇지.

소년① : 조합 종이 막 울리니 쉬라고 하면서……

광호 : 그래. 조합 시간을 따라 일하자구 하시는 걸 보니 그만큼 마음이 움직이신게야.

소년① : 아! 덥구나.

광호 : 참 (생각 났다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 간다)

소년② : 오늘은 참 덥지

소년① : 응 난 땀을 함빡 흘렸다야,

(할머니 물을 들고 나온다.)

(광호 나온다.)

승호 : (받으며) 인주세요.

할머니 : 수고를 하누만 자 물.

소년들 각기 물을 마신다.

소년① : 어 좋구나.

할머니 (소년 ①을 보고) 저 땀을 보지 (수건으로 닦아 준다)

소년① : 괜찮아요.

할머니 : 가만 있어라.

광호 : (멀리 벌판을 보고) 저 봐 벼'모들이 우쭐우쭐 키 돋움하는 것 같아. (흥에 겨워)

모란봉 청류벽을
굽이 돌아서

(소년들 따라 한다)

대동강 맑은 물은
어데로 가나

승호 : 광호야, 너 유치원 아이들한테 배워 주던 노래 있지 않니?

광호 : 응

승호 : 그걸 벌써 꼬마 녀석들이 온통 찌꺼리면서 야단이드라.

광호 : 그래?!

승호 : 용수 녀석은 말이야 아이들 앞장에 서서 호령치면서 야단이야.

광호 : 고 똑똑하지.

승호 : 그래.

할머니 : (물 그릇 들고 일어 서려다) 아니 저게 용수 아니냐?

광호 : (바라보고) 옳아요.

할머니 : 범이 제 소리하면 온다더니…얘 이리온.

용수 : (들어 오면서 소년들 보고) 준비하자!

소년일동 : 준비하자!

용수 : 쉬엿

일동 : 하…하.

(할머니 용수 어깨를 두드려 주고 들어간다.)

광호 : 그놈 대장격인데.

용수 : (광호에게 안기며) 노래해 줘.

광호 : 웃음 놀이를 배워주지 (소년들 보고) 너희들 빙 둘러 앉아.

(소년들 둘러 앉는다.)

광호 : 날 마주 봐 웃음 놀이합시다.

소년들 : 웃으면 안 돼요.

모두 : 벙어리 뚝딱 (구전 유희 동요에서)

(한 아이 콱 웃자) 일동 하…하…

순희 : (황겁하여 달려 오며) 얘들아 큰 일 났어! (석영 뒤따라 들어 선다)

소년들 : 뭐!

순희 : 영진이가 늪에 빠졌어. 빨리! 빨리!

광호 : 그애가…… 석영아 넌 용수를 봐.

(소년들 따라 나간다.)

할머니 : (뛰어 나오며) 아니……그녀석이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나간다)

용수 : 나두 갈래.

석영 : 거긴 무서워! 용수야 웃음 놀이하자.

용수 : 응…!

(둘이서 유희한다.)

용수 : (재미가 나지 않아서) 여기 나쁜 놈 잡자.

석영 : 뭐 나쁜 놈?

용수 : 저기… (돌을 주으며) 잡았다!

석영 : 옳아 나쁜 놈 있구나.

용수 : 또 잡았다.

석영 : 누가 많이 잡나 내기하자.

—사이—

(소년들 등장)

할머니 : 혼날번 했구나.

광호 : 괜찮니?

영진 : (겁에 질렸다) 응…

광호 : 봐, 너 혼자 다니니 그렇지.

소년②: 광호가 뛰여들지 않았으면 넌 잘못 됐을거야.
승호: (광호 보고) 넌 헤염도 잘 하누나.
광호: 대동강에서 좀 해 봤어.
소년②: 야! 대동강에서?
할머니: 내가 뭐라던……기어이 우기더니…
영진: 할머니! (품에 안긴다)
광호: 영진아! 넌 할머니 앞에 단단히 뉘우쳐야 해.
영진: 광호야……너 아니였드라면 난…난…
승호: 영진아, 우린 네가 꼭 우리한테 끼여 들기만 바랬어. 얼마나 광호가 애썼는지 아니? 아까도 논 일을 하면서 야! 영진이가 없는 게 섭섭하구나 그러드라.
영진: 광호야.
할머니: 혼자 떨어져서는 안 되지, 자 어서 의복을 갈아 입어. (할머니, 영진이 방에 들어 간다.)
소년①: 저 앤 뉘우칠거야.
소년②: 정말 나쁜 애야
승호: 아니야 우린 그 앨 좀 더 돌보지 않았지 뭐.
소년②: 왜 안 돌봤서……그만큼 우리가 말했는데……그래도 싸.
승호: 아니야, 우린 그 앨 잘 알지 못 했어,
소년②: 그 장난꾸러길.
광호: 승호 말이 옳아, 나두 가만히 보니 영진인 자연을 무척 사랑하구 있어.
승호: 옳아 그걸 우린 장난으로만 보구 그랬지. 우리두 잘못이 있어, 그애가 좋아하는 걸 조직 안 해 줬지, 광호야 그렇지.
광호: 그래!
승호: 우린 꼭 조직해 줘야겠어.
(영진 나온다.)
광호: 무리하지 말어
영진: 괜찮아… 애들아 난 정말 방학을 잘못 생각했어. 학교를 안 나가니 선생님의 말씀을 다 저바리구, 나혼자 놀 궁리만 생각했거던 또 반 생활에도 참가 안 하구.
광호: 봐, 자기 동무들한테서 떨어져 생활하니 어떤 일이 생기나.
영진: 그리구 난 너희들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배'장만 쳤어
소년②: 잘 말했어, 넌 배'장을 잘 부려, 그러나 그게 쓸데 있는 배'장인 줄 아니?
승호: 영진아, 우리 함께 손잡고 많은 일과 많은 놀음, 많은 새 잡이, 고기 잡이를 해 보자.
영진: 뭐 새 잡이. 고기 잡이?
승호: 그래 혼자서가 아니라 다 같이 말이야
영진: 응……
광호: 그리구 영진아, 넌 단단히 반성해야 해. 동무들과 떨어져서 잘 될 일은 없다는 걸.
영진: 알았어.
광호: 할머니 말씀도 잘 들어야 돼. 할머닌 너를 못 되라고 하겠니.
영진: ……
광호: 애들아, 난 정말 너희들과 함께 지내 오는 동안 동무들이란 어떤건지 똑똑히 알았어.
승호: 우린 안 그러는 줄 아니.
광호: 동무들을 친절하게 꾸준하게 손잡아 함께 걸어 가는 것도 말이야.
소년②: 그런 점은 나도 반성해야겠어, 난 영진일 거저 미운 애로만 봤어.
광호: 그래선 안 돼, 우린 다 같은 동무들이야, 미운 건 미국놈들과 리 승만이야.
승호: 우린 다 같은 동무들이니깐.
광호: 그래 평양에 있건 마을에 있건 다 같은 소년단원이야.
(조합 작업 종소리)
소년①: 애들아 종소리다.
영진: 나두 갈래.
소년②: 너두… 그래 괜찮겠니?
영진: 갈 수 있어……난 너희들 곁에서 절대루 떨어지지 않을래. 광호처럼 너희들에게서 많은 걸 배워야겠어. 그리구 내가 잘못한 걸 난 실천으로서 꼭 시정할래.
광호: 영진아! 고마워.
승호: 가자, 함께 가 일하자.
소년①: (웃음조로) 어른들이 할 일을 영진이가 패 해낼가?
영진: 하구 말구 피병에 걸려서 그랬지.
일동: 하…하
광호: 자 가자, 영진아 너두.
영진: 고마워……할머니 (방으로 오며) 나 광호랑 논에 나가요.
할머니: (나오며) 괜찮으면 어서 나가야지.
(일동 씩씩히 나간다.)
(소년들 노래 소리 멀리 사라진다.)
할머니: 좋은 세상에 난 아이들이다. (막)

우리들의 그림 페지

이런 일이 동무들에게는 없는지요

만화 《절대 비밀》

산림 속의 연기

영화 소개

천연색 예술 영화 《살림 속의 연기》는 쏘련의 저명한 아동 작가인 아. 가이다르의 단편 소설을 영화로 흥미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저기 지평선을 따라 국경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언덕 저쪽은 외국 땅이고 이쪽 울창한 밀림으로 둘러 싸인 곳에는 우리 나라의 아주 중요한 공장이 있답니다. 이 공장에서 나의 어머니는 일하고 있으며 나는 이곳 학교에서 공부한답니다.

이해 여름은 몹시 무더워서 동무들은 모두 미역 감고 있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난 지리 과목에서 2점을 받은 탓으로 집에서 지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렇게 영화의 첫 장면에서 말하듯이 영화의 주인공인 월로자는 오늘도 집에서 지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마침 동무들이 와서 미역 감으러 가자고 소리친다. 월로자는 금시 뛰여 나가고 싶었으나 《다른 애들처럼 미역을 감으려면 2점을 받지 말게지…》 하고 어머니가 꾸짖는 김에 단념한 듯이 큰 소리를 내여 책을 읽는다. 그러나 월로자의 머리에는 미역 감고 싶은 생각 뿐이였다. 그는 어머니를 조르기로 결심한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 구두 찾으러 구두쟁이한테 갔다 올래요》.

《구두쟁이한테?》.

《네!》.

《그냥 가서 미역이나 감아라》 이리하여 월로자는 부르찌크(개 이름)를 끌고 강'가로 달려 갔다.

어린이들이 강'가에서 한창 뛰놀 때 별안간 공장 쪽에서 요란한 고동이 울린다.

공장 가까운 산림 속에서 원인 모를 불이 타 올랐던 것이다. 이때에 한편 월로자의 옆집에 사는 페도쎄예브 비행사 아저씨네 집에서는 전화 벨 소리가 요란히 울려 왔다. 전화를 받는 부인의 얼굴은 갑자기 해쓱해진다.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난 지역에 공중 정찰을 떠난 그의 남편인 페도쎄예브의 비행기가 추락 당했으니 곧 비행장으로 나오라는 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혼자 갈 수 없었다. 그리하여 때마침 그는 강'가에서 달려 온 월로자와 무슨 말이나 다 알아 듣는다는 월로자의 강아지 부르찌크를 데리고 떠났다. 비행장에서는 페도쎄예브와의 모든 련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를 찾아 내기 위하여 온갖 대책을 다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 가 달라는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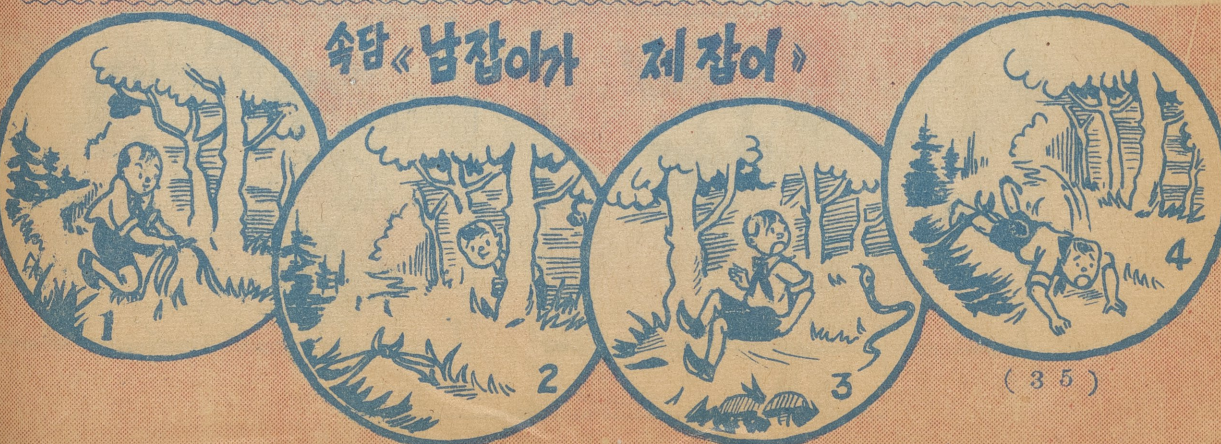
속담 《남잡이가 제잡이》

이리하여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 다시 집으로 돌아 오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나 돌아 오던 길에 그들에겐 뜻하지 않은 자동차 고장으로 큰 사고가 생기게 되였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월로자는 강아지에게 냄새를 맡고 발'자국을 찾는 훈련을 시키기에 정신이 팔려 저도 모르게 숲 속 깊이 들어 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산림은 계속 불타 검은 연기로 휩싸이고 있다. 자동차 운전사와 비행사의 부인은 더욱 초조해졌다. 월로자를 찾아 낼 수 없었으니까.

연기와 불 속에서 빠져 나오려고 갈팡질팡하던 월로자는 이윽고 넓은 공지에 이르러 문뜩 파괴된 비행기와 그 옆에 부상 당하여 쓰러진 비행사를 발견하게 된다.

이 비행사는 바로 화재 정찰을 떠났다가 산림에 불을 지른 간첩들의 사격으로

너, 이 지도를 볼 줄 아느냐?

비행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페도쎄예브 아저씨였던 것이다. 페도쎄예브 아저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월로자에게 빨리 가서 사람들을 불러 오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지리'과에 락제한 월로자는 방향을 찾는 법도 지도를 볼 줄도 몰랐으며 자기가 있는 곳조차 어데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페도쎄예브는 그에게 자세히 방향을 가리켜 주면서 태양이 네 왼 눈에 비치는 쪽으로 향하여 가면 갈바강에 다달으게 된다는 것과 산림 속에는 간첩들이 숨어 있으니 도중에서 놈들에게 띄우지 않도록 몸을 피하여 가라고 타일러 주었다.

월로자는 비행사 아저씨가 일러 준 대로 줄달음쳐 가다가 나무에 불을 지른 간첩놈들을 만나게 된다.

그는 조금도 당황해 하지 않고 숨을 모아 숲 속에 숨어서 간첩놈들이 가는 쪽을 지켜 보고 있다. 다행히 월로자는 몸을 피할 수 있었다.

기진맥진해졌으나 그는 오직 비행사 아저씨를 빨리 구원해 내며 간첩들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불과 연기로 휩싸여 큰 길도 오솔'길도 없는 무시무시한 산림을 재빨리 헤치고 이윽고 갈바강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강'가에도 사람은 없었다. 그는 강을 건너야만 했다. 그런데 월로자는 헤염도 잘 치지 못하는 데다 강아지까지 매달려서 허둥지둥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 생명이 매우 위험한 순간에 놓이게 된다.

때마침 이곳에 다달은 국경 경비대원들이 그를 발견하고 구원해 낸다. 정신이 들자 월로자는 곧 부상 당한 비행사와 산림 속에 간첩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어린 월로자의 용감성으로 하여 모든 것은 무사히 끝났다. 비행사는 구원되고 간첩들은 체포된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 월로자는 페도쎄예브 아저씨에게 불리워 갔다. 아저씨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그래 잘 있었니? 월로자 요즘 지리 공부는 어떻냐?》.

《괜찮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공부해야 돼, 배워 두면 꼭 쓸 데가 있는 법이다》.

《정말 그래요. 아저씨…》.

이날 비행사 아저씨는 기특하고 용감한 월로자에게 자

기의 라침판을 기념으로 준다.

월로자는 대단히 기뻤다. 그는 라침판을 받아 들고 소중히 들여다 보면서

《아저씨 파란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고 붉은 바늘은 남쪽을 가리키지요》.

인제는 월로자도 라침판을 볼 줄 알게 되였던 것이다.

강'가에서는 아이들이 월로자를 둘러싸고 부러운 듯이 그의 라침판을 돌려 보면서 명랑하게 노래를 부른다.

……어느 곳에나 언제나 승리를 쟁취하며

완강하고 영예로운 로동에서 첫째가 되자
어떤 일을 하든지
억센 힘과 건강이 필요하다네
쓰련의 삐오네르들아!
로동과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동화 선물 상자

리 통 석

그림 남 현 주

게으름뱅이 여우가 산 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굶주려서 맥빠져 버린 여우는 긴 꼬리를 사리고 수풀 속에 앉아 있다 오솔 길로 커다란 상자를 메고 가는 곰을 보았습니다.

《저게 뭘가?》

여우는 소르르 감겨 오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코를 발름거리며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해해…맛있는 음식이 틀림 없군, 이 여우님의 코야 속일려구》.

그러자 배'속에서는 쪼르륵 하며 어서 좀 먹어 달라고 소리쳤고 네 다리는 냉큼 일어서라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여우는 더 참지 못하고 발딱 일어나 살금살금 곰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뺏어 먹는 담? 저 놈은 미련하긴 해도 힘이 장사가 돼서…해해, 그러나 여우님에게 수가 없을라구》.

마음 같아서는 당장 상자를 빼앗고 싶었으나 곰의 주먹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일이 바로 될 때라 때마침 산턱을 오르고 있던 곰이 길'가에 상자를 내려 놓고 저쪽 수풀 샘물터로 물 마시러 가는 것이였습니다.

이때라고 생각한 여우는 어쩔 줄을 모르며 발래발래 곰의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은 힘 안드리고 열렸습니다. 상자 안을 들여다 본 여우는 하마트면 소리 마저 지를뻔 하였습니다. 기름'기가 반지르 도는 떡이 반 상자나 나마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군침과 함께 몇 개를 넝큼넝큼 삼켰습니다.

《이대로 먹고 있다간 들키겠는 걸》.

여우는 샘물터 쪽을 힐끔 처다 보며 중얼거리고는 상자를 처들어 보았습니다. 한편 모서리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캥—하고 궁둥 방아를 찧었습니다.

《이런 땐 곰 같은 힘이 부러운 걸》.

중얼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던 여우는 피뜩 무슨 꾀가 떠올랐던지 해롱해롱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 여우님을 누가 몰라 보느냐?!》 하더니 상자 안으로 들어가 뚜껑을 닫았습니다.

어느덧 어기적거리는 곰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 오더니 상자 곁에 와 멎었습니다. 곰은 아무 것도 눈치 채지 못하고 상자를 다시 둘러 멨습니다.

상자 안은 깊은 굴 속처럼 깜깜했습니다. 너무 비좁아서 몸을 웅크린 채 겨우 한 발을 놀려 가며 여우는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떡이 없어진만큼 상자 안도 넓어지는 듯 했습니다.

떡을 다 먹어 버린 여우의 배는 터질듯이 불러 올랐습니다.

비청비청 곰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상자는 곰의 어깨와 같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만치나 여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해…이 미련한 곰아! 이 세상에서 내 꾀를 당할 놈이 어디 있단 말이야》.

여우는 곰이 상자를 내려 놓고 쉬기만 바랬습니다. 뚜껑만 잠시 여는 날이면, 이미 떡은 배'속에 있는 거고, 네놈의 곰이 아무렴 내 걸음을 따르랴 싶었던 것입니다. 밖이 내다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는지 답답하긴 했으나 배는 잔뜩 부르고 상자는 기분 좋게 흔들리는 데 사뭇 흥겨운 코'노래까지 흘러 나왔습니다.

—날개는 없어도
  여우님은 날아 간다네…
일은 하지 않아도
  여우님은 배 불리 먹는다네…

얼마를 걸어 가던 곰은 한 골짜기를 넘어 벼랑 밑에 뚫린 굴 앞에 이르러 상자를 내려 놓았습니다.

휘파람을 불자 굴 속에서 곰 한 마리가 허리를 굽으리고 뚱기적뚱기적 기여 나왔습니다.

《형님, 평안했소? 어제 내 생일 잔치에 그만 형님을 청하지 못해서; 그저 변변치는 못한 것을 조금 가져 왔어요》.

《허허, 내 생각을 끔찍히 해 주니 고맙구만 잘 먹겠네》.

상자를 메고 온 아우 곰이 돌아가자 굴 속에서 나온 형님 곰은 상자를 들고 굴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오늘은 일수가 좋은걸… 생일 선물을 먹게 됐는 데》.

형님 곰은 중얼거리며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붉으레하고 북실북실한 털을 가진 놈이 웅크리고 있질 않겠습니까!

형님 곰은 앞발로 꾹 찔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자 안에 있는 북실북실한 놈은 흠찔하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허 동생의 선물이 살았는 걸》.

형님 곰은 뚜껑을 꽉 닫고 그 우에 올라 앉아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마누라 물을 끓여요. 그리고 식칼을 들여 오우 동생이 선물을 가져 왔소, 산 선물이요!》.

그러자 마누라는 식칼을 들고 들어 오며 소리쳤습니다.

《산 선물이 어떤 선물이예요? 어서 구경 좀 해요.》

애국 렬사의 아들답게

우리 학교 리 용 동무는 말 없는 동무이지만 참 결심이 굳은 동무입니다.

그는 나이 차차 들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며 성적이 학기마다 높아져 갑니다.

3 학기말에 있은 대모임 때 그는 처음으로 이야기했는데 《난 언제나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고 아버지는 늘 나에게 타 일러 주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미제 놈들에게 학살 당했어요. 나는 꼭 아버지의 말씀대로 공부를 잘하고 일을 부지런히 하여 조국을 사랑하는 참다운 일'군이 되겠어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결심 다진 대로 지난 4학기에는 중간 시험에서 모두 4, 5점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공부에서 뿐만 아니라 일에도 참 부지런 합니다.

아침이면 남 먼저 일어나 마을을 깨끗이 청소하며 《꼬마 5개년 계획》 활동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대 동무들은 그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함남 리원군 염성 제1 인민 학교
김 학 윤

애국 렬사 가족을 원호한다

평남 순안 제2 인민 학교 대 3분단 동무들은 내무원으로 일하시던 아버지를 미국놈들에게 학살 당한 정숙 동무네 가정을 성의껏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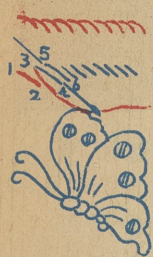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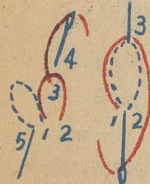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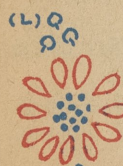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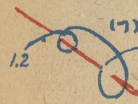
정숙 동무네 집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넷씩이나 기르면서 직장에 다니시기 때문에 집'일이 몹시 바쁩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이 분단 동무들은 방과후마다 정숙이가 하는 집안 일을 도와 물을 길어 주고 뜨락도 쓸어 주군 한답니다.

얼마전 정숙이네 집을 수리하는 날도 그들은 흙질하는 일, 물 긷는 일을 열심히 도와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절약한 종이, 연필, 노트를 정숙이와 나누어 쓰고 폐품을 회수해서 얻은 돈으로 교과서도 사 주었습니다.

이런 모범을 따라 이 학교 대 많은 분단들에서는 날마다 애국 렬사 가족들의 집'일을 도와 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바느질을 배우는 동무들에게

바느질법 기초 몇가지

(ㄱ)《시침》— 옷감의 아래 우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림과 같이 시치는 것이다.

(ㄴ)《호갬질》— 아주 잘게 호는 법인 데 흔히 조선 옷을 짓는 데 사용된다.

(ㄷ)《맘자기》— 혼솔끝을 풀리지 않도록 그림과 같이 하는 것이다.

(ㄹ)《감치기》—보선 볼 같은 데 사용하는 데 양장에서는 치마'단 같은 데를 재봉으로 박을 대신에 사용한다. 그림과 같이 먼저 시침을 한 후 오른편 단끝부터 시작하여 아래 거죽을 조금 뜬 다음 단끝으로 바늘을 뺀다.

(ㅁ)《밀어 감치기》— 양복의 얇은 옷감끝을 정리할 때 또는 손'수건에도 사용한다.

(ㅂ)《당치기》— 그림과 같이 재봉으로 한 것처럼 배게 박는다.

양말 수리법

양말이 께여졌을 때 흔히 헝겊을 안으로 대든가 거죽으로 대서 감치는 것이 보통이나 그것보다 그림과 같이 양말 구멍이 난 곳에 정구 같은 것을 받치고 양말 색과 비슷한 실로 날을 세운 후 한 줄씩 엇바꾸어 베 짜듯이 하면 모양도 보기 좋고 든든하다.

옷 깁는 법

조선 옷은 해진 구멍을 거죽으로 헝겊을 대고 손으로 기워도 좋으나 특히 양복은 천을 안으로 풀칠하여 붙인 후 대림으로 대리고 같은 색 실로 당치면 보기 좋다.

그리고 좀이 먹어 구멍이 나거나 ㄱ자로 께진 구멍은 양말 깁듯이 의복에서 뽑은 실이든가 같은 색실로 깁는 것이 좋다.

장식법 몇가지

(1)도안 그리는 법

천에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천 우에 복사지와 도안을 놓고 도안을 따라 그리면 된다.

(2) 수 놓기 위한 준비

수 틀을 메워 천을 바싹 죄우면 수 놓기 한결 쉽다. 실의 색갈은 그림에 어울리도록 택하며 비단 실이나 자수 실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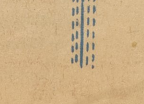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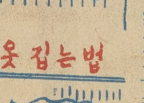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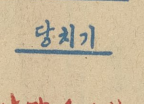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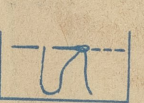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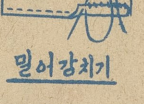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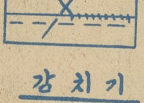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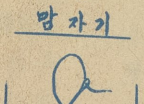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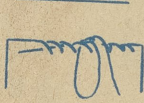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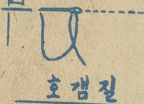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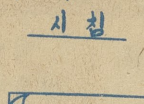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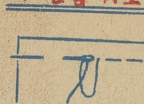
그림 (1)은 처음 바늘을 1 에서 뽑아 2 에 꽂고 3 에서 뽑아서 4에 꽂는다. 주의할 점은 2와 3의 사이가 짧은 때에는 가늘게 되고 긴 때는 굵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꽃의 대, 또는 줄기 같은 데 많이 사용한다.

그림 (2)는 1 에서 바늘을 뽑아 실을 한번 돌려서 2에 꽂은 후 3으로 뽑아서 4로 해서 5로 뽑는다. 주의할 점은 실을 너무 세게 당겨 돌리면 꽃의 형이 없어지기 쉬우니 잘 해야 한다. 이것은 국화꽃이나 간단한 나무 잎 같은 데 사용한다.

그림 (3)은 처음 1에서 바늘을 뽑아 그 실을 왼 손으로 당겨 쥐고 바늘 끝에 한번 바른 편으로 감은 후 1의옆인 2에 꽂으면 방울이 생긴다. 실을 댕기는 정도에 따라 방울이 커지고 작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방울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바늘 끝에 실을 두번 세번 감으면 된다. 이것은 작은 꽃이나 꽃의 웅예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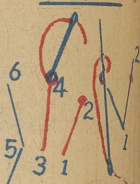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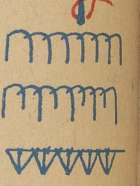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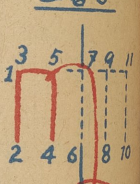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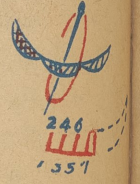
그림 (4)는 1에서 바늘을 뽑아서 2로 꽂아 3으로 뽑으면 된다. 작은 국화 송이 같은 데 간단히 리용된다.

그림 (5)는 그림 (3) (4)에서 한 것처럼 두가지법을 리용하면 된다

그림 (6)은 1에서 바늘을 뽑아서 2에 꽂고 1에서 다시 뽑아 4에 꽂으면서 5로 뽑는다. 이것은 앞 치마 선 또는 손'수건, 책상보선 같은 데 사용된다.

그림 (7)은 처음에 ㄱ와 같이 세로 실을 걸고 다음에 ㄴ와 같이 가로 실을 쫀쫀히 놓는다. 가늘게 할 때는 그림 ㄷ와 같이 한다. 특히 바늘뜸이 가즈런히 곱게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접시 받침, 꽃병 받침, 카텐 등에 사용한다.

그림 (8)은 처음에 그림과 같이 겉으로 속을 넣고 그 우에 그림과 같이 1에서 바늘을 2에 꽂아 다시 1로 뽑을 때 실을 오른 편으로 한 번 돌려 뽑는다. 특히 주의할 것은 완성된 후 바깥 쪽을 베는 때가 있기 때문에 바깥 쪽으로 바늘 뜸이 고루어야 한다. 바늘뜸이 설피면 속이 보이기 쉽다. 이것은 책상보, 꽃병 받침 등에 사용한다.

그림 (9)는 손'수건에 간단히 장식하는 그림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방법을 리용하면 된다.

조각 : 삐라를 뿌리는 남반부 소년………조 원 석 작

편집 위원 김 주 현(주필) 김 칠 성 리 원 우 리 동 무 송 정 우 신 진 균 최 윤 호

1957년 7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7년 7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7년 제 7 호 (총94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531 값 25 원 80,000부 발행